

ISSN 2384-373X

달서문화만개
Vol.15



달서문화만개

(재)달서문화재단 소식지
Dalseo Culture Foundation

Vol.15



달서문화재단



FSC 인증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영감(靈感)

7.000.13:59:56

The most important number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다.

Climate clock이 지난 7월 22일 오전 11시 현재 7년 13시간 59분 56초를 표시하고 있다.

현재의 상태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C 상승하는 데 남은 시간, 일명 탄소예산시간이다.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상승하면 지금과 같은 일상은 불가능해진다고 한다.

코로나19에 빼앗긴 일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때가 되면 인류 존재 자체가 물음표다.

북극과 남극에서 사라진 빙하는 거대한 재앙으로 변해 인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지구 중심부를 향해 오고 있다.

15세 소녀가 금요일 등교를 거부한 이유다.

문화예술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영감(Inspiration),

기후위기의 시계추를 되돌리는 영감이 필요한 때다.

INSPIRATION

Cover Story



김윤종 「하늘보기」
290.9cm x 181.8cm

칠혹 같은 어둠 속 잔잔한 별들이 쏟아지는 밤풍경을 통해 자연에 대한 경이와 신비로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이다.

김윤종의 하늘은 우리에게 심상적 사유의 공간으로 다가오며, 이상적인 자연을 향한 갈망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

CONTENTS

Dalseo Culture Foundation
Vol.15

theme

Column

08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 정책 현황과 과제
_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장훈 연구위원

14
지속가능 이벤트 매니지먼트로
기후위기 대응하기
_ (주)그린임팩트 정현영 대표

18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을 위한 노력
연극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중심으로
_ 연극 연출가 전윤환

22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문화예술
_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

26
기획특집 : 제3차 생각나눔포럼

with Dalseo

Story

36
상화와 빙허, 21세기에 다시 만나다

Place

40
달서생활문화센터
보고 배우고 즐기면 행복하지 아니한가

44
달서별빛캠핑장
앞산에서 시내야경 · 별 보며 하룻밤

46
달서목재문화관
아이와 함께 목공 체험하러 오세요!

People

48
구름은 나의 영원한 캔버스
서양화가 김윤종

50
기계공학도의 화려한 변신
아트컴퍼니 <소묘> 대표 백창하

52
도서관 지킴이의 아름다운 퇴장
작은도서관 이옥례 주임

ON Air

54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속 계명한학촌

from Dalseo

Review

60
유자 왕 피아노 리사이틀

62
달서아트센터 자체 제작 뮤지컬 「월곡」

64
상반기 프로그램 & 축제 · 공연

Preview

70
달서아트센터 하반기 공연

72
하반기 프로그램 & 축제 · 공연

발행인 (재)달서문화재단 이사장 이태훈 발행처 (재)달서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장기동) 2F 문화정책실(053-584-9715)
발행일 2022년 7월 기획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편집위원 김영남, 김옥렬, 박경숙, 박지은, 이성욱, 이창원, 임현우, 채재휘, 최재수, 최현목
디자인/제작 동아문화사(053-252-9060) 2022 NO.15 비매품 ISSN 2384-373X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달서문화재단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로 신청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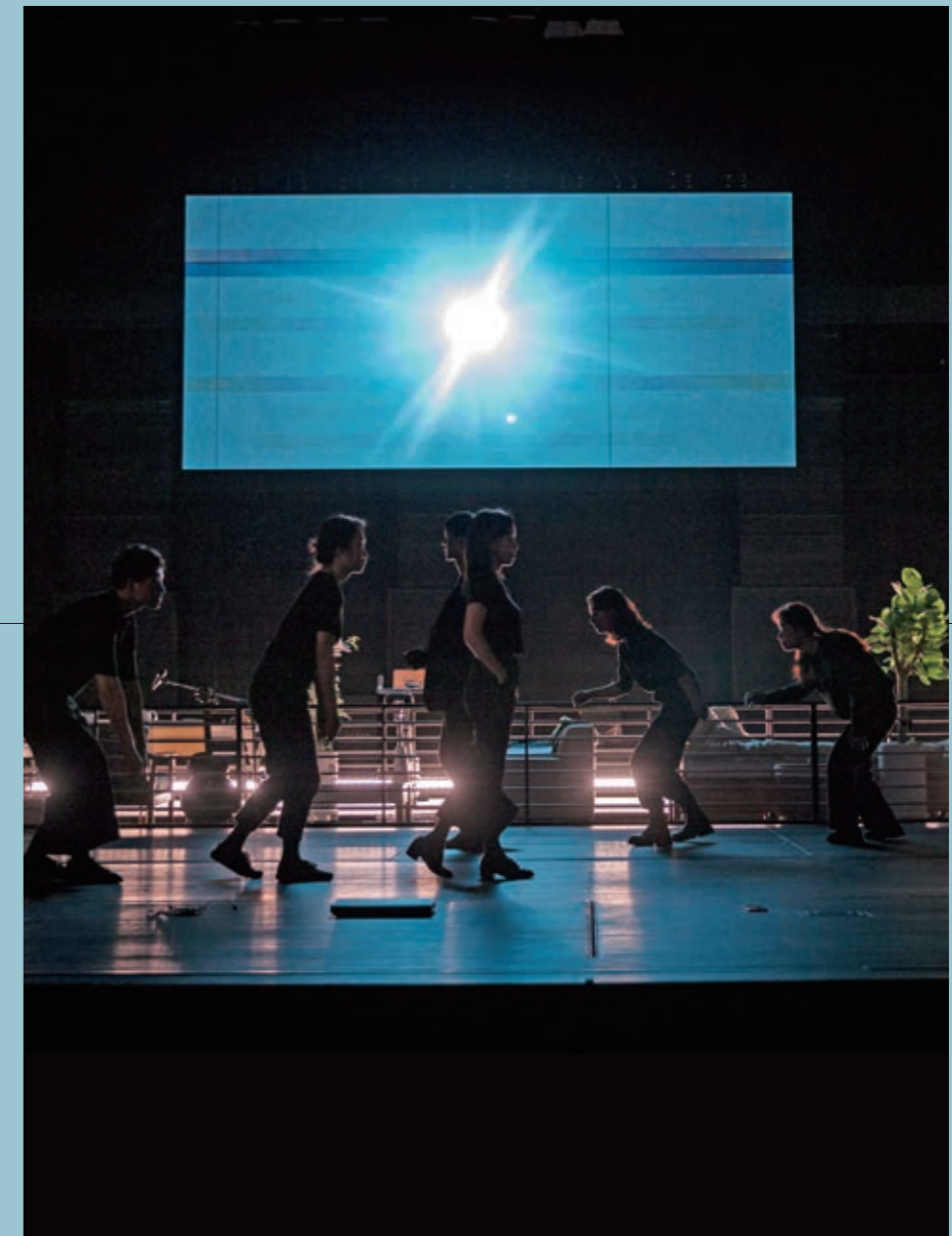
theme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전문가의 칼럼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친환경 정책과 과제를 비롯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계의 활동과 노력을 알아본다.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 정책 현황과 과제

한글문화관광연구원

자
이
리
아

문화예술에서 친환경적 관점(eco-friendly perspectives)의 필요성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 분야도 환경과 기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이런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도대체 문화와 예술이 기후변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이용한 대량 생산체계는 막대한 자연자원의 소비와 폐기물의 배출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기후환경 변화, 자연환경 오염과 파괴, 질병 확산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 결국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이슈는 인간의 행위이자 ‘삶의 방식(way of life)’, 즉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이러한 환경 이슈가 과학적 조치만이 아닌 ‘문화적 전환’을 성취할 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광의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 및 소비활동으로 인해 ‘탄소’와 ‘폐기물’이 배출되고 자연 및 생활환경이 훼손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는 2012년부터 800여 개의 협력 기관과 함께 환경프로그램(Environmental Programme)을 운영하면서 예술 활동에서의 환경적 관점을 제공하고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2016년 발효된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 강조하고 있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고려할 때,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 자원을 소비하는 문화예술에서도 이러한 관점과 정책 도입, 실천적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예술 분야 친환경 정책현황

문화예술 분야는 제조업이나 광공업 등과 달리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공연·전시 및 기타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고 다량의 폐기물을 방출하고 있다.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도 기후환경변화 등 환경 이슈에 더 이상 ‘무풍지대’가 아니다.

<표 1> 국내 문화예술 관련 주요 계획 및 정책과 주요 환경정책 영역 연계

계획 및 정책	자연 환경 보전	국토·해양 · 대기환경 보전	자원 순환	기후 변화	기타 (커뮤니케이션, 협력체계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문화체육관광, 2008)	●	●	●	●	●
문화비전 2030 -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체육관광부, 2017)		●	●	●	●
자원순환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	●		
환경 분야 주요 문화예술 관련 계획	●	●		●	●

자료: 노영순, 장훈, 김규원(2021).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주요 환경정책 영역에 문화예술 관련 주요 계획 및 정책에서 제시한 ‘환경’ 관련 내용을 연계하여 분석하면 위 표와 같다. 현재 국내 정책 영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문화기관 및 시설, 주요 이벤트 등의 탄소 저감 및 에너지 관리)과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기타 영역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 외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 등의 자원순환, 자연환경 보전 등도 정책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대기환경 보전의 경우, 도시 유희시설의 문화예술적 활용,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공간 조성 등이 주요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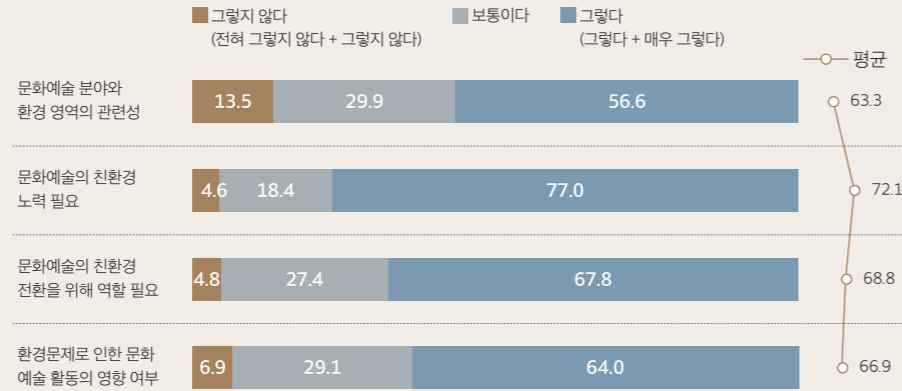
문화예술 분야 친환경 인식

문화예술 분야에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시민, 문화시설, 예술인 등의 친환경 인식 및 실천 여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노영순, 장훈, 김규원(2021)의 연구에서 시민과 문화시설의 친환경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였고, 이는 문화 분야 친환경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결과 공공문화예술 소비자의 56.6%는 환경과 문화가 관련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7%로 4가지 문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예술이 국가 전체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8%였다. 또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문화예술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응답도 64%였다.

Col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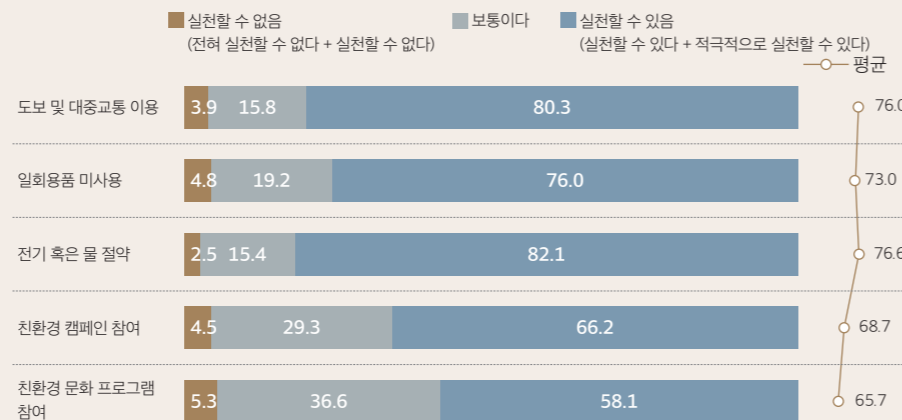
<그림 1> 문화 향유자의 문화와 환경의 관련성 인식 (N=1,000명, 단위 : %, 점)



자료 : 노영순, 장훈, 김규원(2021).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동 연구에서 문화 향유 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적 행동은 '전기 혹은 물 절약'이 8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80.3%)', '일회용품 미사용(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환경 문화 프로그램 참여'는 5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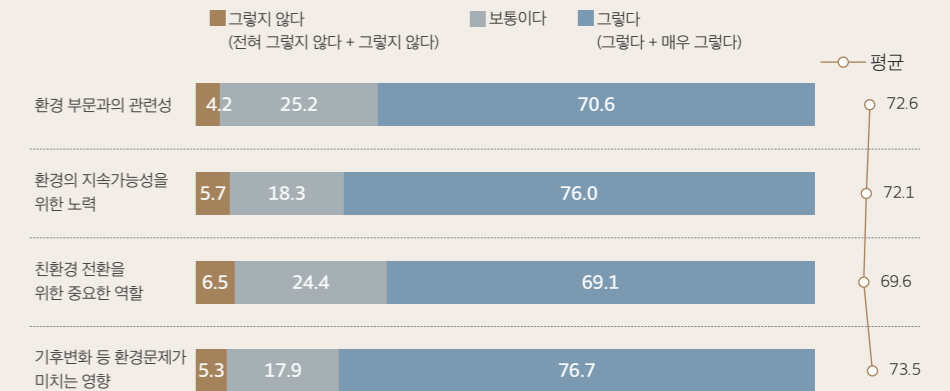
<그림 2> 친환경적 문화서비스 이용 실천 가능성 (N=1,000명, 단위 : %, 점)



자료 : 노영순, 장훈, 김규원(2021).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문화서비스 기관의 '문화예술과 환경 부문 간의 관련성'에 대해 70.6%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 노력'은 7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국가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문화예술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69.1%, '기후변화 등이 문화예술 활동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76.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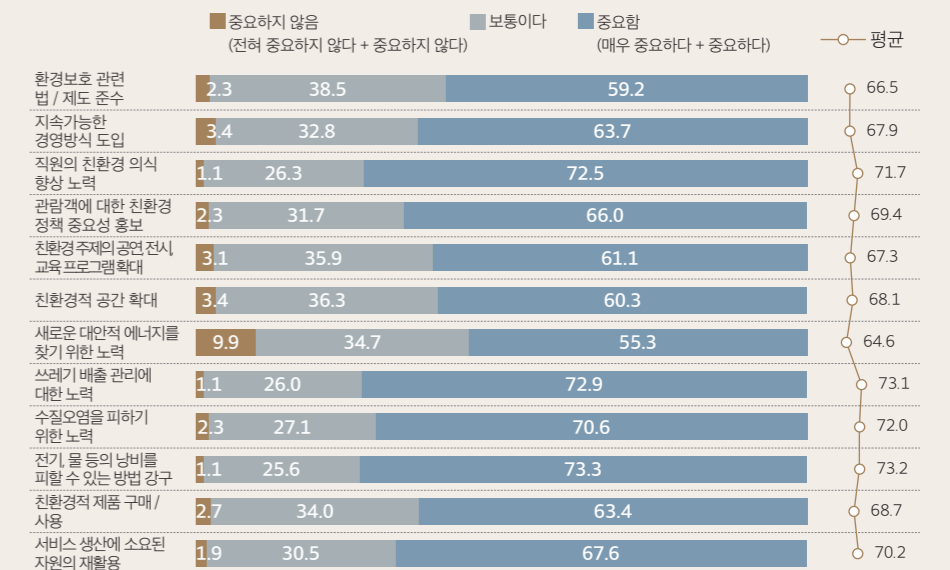
<그림 3> 문화기관의 문화예술과 환경 부문과의 관련성 인식 (N=262개, 단위 : %, 점)



자료 : 노영순, 장훈, 김규원(2021).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문화서비스 기관의 친환경 실천 영역별 중요성을 종합해 보면 '전기, 물 등의 낭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강구'가 7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쓰레기 배출 관리에 대한 노력(73.1점)', '수질오염을 피하기 위한 노력(72.0점)', '직원의 친환경 의식 향상 노력(71.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주제의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는 67.3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는 아니었다.

<그림 4> 문화기관의 친환경 실천 영역 중요성 인식 (N=262개, 단위 : %, 점)



자료 : 노영순, 장훈, 김규원(2021).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 관점

문화예술에 있어서 '친환경적 관점'이란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때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후변화 등 위해(危害)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련 행위와 과정을 친환경의 관리 '대상'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단편적인 접근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이슈는 인간의 생활방식, 즉 광의적 의미의 문화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환경 이슈의 해결과 친환경성의 확보는 '문화'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은 환경 이슈를 보다 쉽게 인지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와 연대를 촉발하는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있어 또 다른 '친환경적 관점'은 '환경 이슈에 관한 소통과 해결, 연대의 동인(driver)으로서 문화예술을 인정하고, 문화와 환경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문화예술에 있어 친환경적 관점

환경에 있어 문화예술의 의미	친환경 관점
대상(對象)으로서 문화예술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때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후변화 등 위해(危害)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
동인(動因)으로서 문화예술	환경 이슈에 관한 소통과 해결, 연대의 동인(driver)으로서 문화예술을 인정하고, 문화와 환경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

자료 : 노영순, 장훈, 김규원(2021).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 정책 방향

환경문제, 인구문제와 같이 예정된 외부변수에 대응하는 정책적 전략은 저감과 적응의 방향성을 갖는다. 저감(mitigation)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완화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되고, 적응(adaptation)은 문화예술 분야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저감은 규제 등을 통해 물리적 방식의 원인행위 저감을, 적응은 인식과 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먼저 가진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적응과 완화전략을 병행하되 단기적으로는 완화전략을 사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기후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동양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동의한다면, 국내 문화예술 분야 친환경 정책의 큰 방향성은 적응과 완화에서 출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된다.

<표 3>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적 적응 및 완화전략(예시)

적응전략	완화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내 녹지 공간 확대 -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료 관리체계 마련 - 실내 환경(온도, 공기)을 적절히 유지 - 문화시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국가재난네트워크 등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에너지의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문화 이용 시 도보·대중교통을 이용 - 자원의 절약, 리사이클 - 문화예술을 활용한 환경 커뮤니케이션

자료 : 장훈(2021). 친환경 관점을 적용한 문화예술의 새로운 지평. 웹진 문화관광(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11.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는 문화정책에도 일정 부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미 정책적 압박을 느끼고 있지만 문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문화예술 영역에 아직까지 환경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탓이다. 문화정책 영역에서 친환경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현장의 목소리로부터 시작하자. 이미 앞선 국가들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지침 가이드 등이 개발되는 등 친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문화예술 영역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친환경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문화 분야의 목표설정,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도 시급하다.

환경 이슈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은 높지만 개인적인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거나 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혁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저항과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개인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환경 분야에서도 이제 시민 공감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감성적, 창의적 그리고 소통의 역할을 통해 친환경 전환에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노영순(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노영순, 장훈, 김규원(2021).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장훈(2021). 친환경 관점을 적용한 문화예술의 새로운 지평. 웹진 문화관광.

지속가능 이벤트 매니지먼트로 기후위기 대응하기

(주) 그린임팩트 대표

정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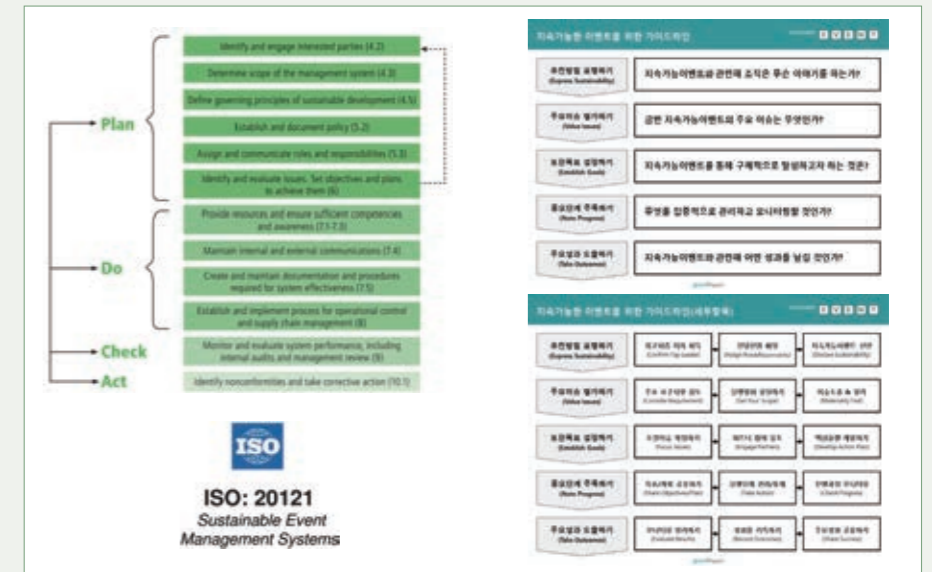
지속가능 이벤트 매니지먼트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Social)와 지구 환경(Environmental)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 문화예술 영역에서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사회와 기후 위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지속가능 이벤트 매니지먼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 이벤트 매니지먼트(Sustainable Event Management)는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행사(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올림픽, 플리마켓 등)에서 발생가능한 지속가능성 이슈(사회적,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사전에 발견해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운영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Sustain + Ability)은 여러 정의가 있지만, Meegan Jones 교수가 언급한 “견딜 수 있는 능력(Capacity to Endure)”이라는 개념을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한다.

지속가능 이벤트 매니지먼트(시스템)는 2012년부터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시행된 인증제도이다. 2012년 런던올림픽을 시작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적용되었다(동계올림픽 최초 ISO20121 인증). 올해는 한국관광공사와 제주컨벤션뷰로도 인증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림 1> ISO20121과 지속가능 이벤트 매니지먼트 가이드라인 주요 체계



(출처) <https://pvimc.com/iso-201212012>

ISO20121(지속가능 이벤트 매니지먼트시스템, Event Sustainabil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은 다른 ISO 인증처럼 조직운영에 체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Plan / 계획, Do / 실행, Check / 점검, Act / 개선)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시스템(System)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발성 이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계에 내재돼 있어 일상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문화예술 조직에서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ISO 인증체계를 적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큰 맥락을 유지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재정리해 보았다<그림 1>.

지속가능 이벤트 매니지먼트를 위한 가이드라인

지속가능 이벤트 매니지먼트 가이드라인의 주요 진행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사의 최고책임자가 지속가능성 추진방침을 표명한다.

행사(축제, 박람회 등)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작 및 운영하겠다고 행사조직의 최고책임자가 선포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실천선언문 같은 것을 만들어 조직구성원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리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리더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예산도 확보할 수 없고 실제 제작 및 운영 과정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

둘째, 진행하려고 하는 행사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이슈를 모두 찾아본다.

담당자들이 모여 무작위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리된 유형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도출한다. 지속가능성 이슈들을 찾으려면 행사와 관련된 모든 계획서를 검토해야 한다. 행사

추진계획서, 세부계획서, 현장운영계획서, 안전매뉴얼 등 관련된 자료는 최대한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전시회나 공연, 소규모 행사는 비교적 적은 이슈가 나오지만 야외 장소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에는 수백 개 이상의 이슈가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가 미리 판단하고 이슈들을 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지속가능성 이슈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모든 이슈들을 찾아야 한다.

셋째, 발견한 이슈 중에서 실제로 도전하고 해결할 이슈를 선정한다.

조직 내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실현가능성, 예산, 역량 등)과 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심도(영향력, 언론관심, 상급기관 평가지표 등)를 고려해 선정한다. 특정한 한두 명이 의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여러 사람(조직책임자, 실무책임자, 담당자, 협력·지원관계자 등)이 참여해 선정하게 되면 실제 추진과정에서 실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처음 시도한다면 10~20개 정도의 이슈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선정해 성공보다 실패 경험이 더 많아지게 되면 조직은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담당자도 지치게 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중요한 이슈와 실행가능한 이슈가 충돌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실행가능한 이슈를 먼저 선정하기를 권한다.

넷째, 선정된 이슈들을 현장에서 실제로 잘 해결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선정한 이슈들을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고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제로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선정된 이슈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을 공지하고 실제로 해당 이슈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이슈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참조 <표 1>).

다섯째, 주요 성과를 도출해서 공(功)은 알리고, 과(過)는 성찰의 계기로 삼는다.

모니터링하고 난 후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좋은 결과들은 정리해서 외부에 잘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 공유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한 후 진행한다. 원래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 보고서 영역에서는 공과(攻過)를 모두 공개하라고 되어 있다. 뭔가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에는 Push하는 방식보다 Pull의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지속가능 이벤트 매니지먼트가 만들어진 취지도 한 곳이 잘한 것을 다른 곳도 잘 모방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어떤 곳이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잘하는 면을 발견한다면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주면 좋겠다.

지속가능 이벤트 매니지먼트가 보편적인 용어가 되길 바라며...

지속가능 이벤트 매니지먼트가 잘 적용되려면 무엇보다 담당자가 이 분야에 대한 진정성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일종의 사회적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실천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 먼저 기후

변화와 기후위기, ESG, 순환경제,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과 잘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몇몇의 사람들 또는 몇몇 기관이나 지자체가 모든 지속가능성 이슈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다양한 주체들이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해야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 분야에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연결이 중요하며 다음으로 조직과 기술이 연결되고, 뒤이어 정책과 지원들이 일관적으로 개선돼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고 실행하기보다는 부족하지만 한두 개의 이슈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어느새 체계가 만들어지고 좋은 성과들도 쌓일 것이라고 본다. 모두가 현장의 지속가능성 실천가로!

<표 1> 지속가능성 이슈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일부 샘플자료)

지속가능성 이슈	주요 내용	선정
에너지 공급 (Energy)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를 사용할 계획이나 방법이 존재하는가?	<input type="checkbox"/>
	-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품목들에 대한 별도 관리방안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 사용하는 에너지 품목은 높은 효율등급 제품인가?	<input type="checkbox"/>
	- 낮 동안 불필요한 조명을 차단하는 계획이나 공지가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 온실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장비(디젤발전차 등)는 무엇인가?	<input type="checkbox"/>
이동 / 수송 (Transport)	- 행사장은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괜찮은가?	<input type="checkbox"/>
	- 참가자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 시 행사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 차량(2인 이하 탑승)을 통해 행사장에 오는 것에 대해 자제 요청을 하는가?	<input type="checkbox"/>
	- 행사 차량들은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 교통 혼잡 시 대응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 행사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은 인근 지역에서 배송되는 품목들인가?(로컬)	<input type="checkbox"/>
구매 물품 (Procurement)	- 행사에 사용되는 물품 중에 일회용품은 무엇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 환경연출 시 사용되는 구조물이나 홍보물품은 재사용 가능한 형태인가?	<input type="checkbox"/>
	- 시민들에게 나눠 줄 기념품은 재활용 / 재사용 가능한 형태인가?	<input type="checkbox"/>
	- 구매한 물품 중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분리배출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 판매물품 중 불필요한 포장에 있는 제품은 무엇인가?	<input type="checkbox"/>
식음료 품목 (Food & Beverage)	-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조된 식음료인가?	<input type="checkbox"/>
	- 지역에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받는 식음료인가?	<input type="checkbox"/>
	- 깨끗한 음용수(물)를 공급하는가?	<input type="checkbox"/>
	- 음식물 조리 시 과도한 연기가 발생하는가?	<input type="checkbox"/>
	- 제공되는 음식물에 대한 위생점검은 계획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폐기물 관리 (Waste)	- 일회용 생수병 사용은 참가자 및 판매업체 모두 금지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 음식물 제공 시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에 제공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 시민들이 리필 가능한 컵을 지참할 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가?	<input type="checkbox"/>
	- 분리배출 코너는 발생하는 쓰레기 유형별로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 쓰레기통은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제작 또는 준비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 분리배출 코너에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운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 인쇄된 홍보물이나 경품, 샘플 제공은 최소화하는가?	<input type="checkbox"/>
	- 홍보물은 인쇄물이 아니라 전자적인 매체로 대체하는가?	<input type="checkbox"/>
	- 사용금지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가?(PVC, 스티로폼류, 일회용 비닐봉지 등)	<input type="checkbox"/>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을 위한 노력 연극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중심으로

연극 연출가

전 력 위 환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가져다 준 새로운 과제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예술계는 관객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극장을 열지 못하거나, 제한된 관객을 만나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작품을 송출하는 등 처음 겪어 보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인류에게 찾아온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방식에 대해 잠시 멈추고 질문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다 주었다. 인류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후위기'는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 인류 최대의 의제로 급부상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본질적으로 지나친 개발과 간섭, 무한 성장주의, 인간중심주의가 만들어 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작년 6월 국립극단으로부터 '기후위기'에 대한 연극을 제작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연극을 만들자고? 연극을 쓰고 연출하는 나에게 기후위기가 갑자기 찾아왔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과 활동가들은 끊임없이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인류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늦추어 왔고, 지구 온도를 1도 올려놓았다. 0.5도가 더 높아지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한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지금처럼 탄소 배출을 하면 회복 불가능한 시간까지 7년 남았다고 보고 있다. 7년? 7년이라니...

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후위기 관련 자료를 섭렵해 나갔다.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를 만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조천호 박사는 "과학은 원인과 예측의 근거를 찾는 일이고, 설득은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덧붙여 이만큼 기후위기 의제가 급부상한 것도 청소년 기후활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금요 결석 시위를 하고, 세계 정상들에게 경고하는 등의 스토리텔링

이 갖는 힘 덕분이었다고 말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많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갑자기 찾아온 이 과제에 대해 '예술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다.



<IPCC 1.5도 특별 보고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인도 작가 아미타브 고시는 "기후위기는 문화의 위기이자 상상력의 위기"라고 말했다. 상상력의 부재, 언어의 부재를 기후활동가들부터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술가들까지 통감하고 있다.

기후위기라는 거대 서사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기후활동가들은 기후위기를 지구 밖 우주적 관점에서 '지구가 아파요', '지구를 위해서', '지구의 멸망' 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이야기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인간이 멸종할 뿐이다. 기후위기라는 거대 서사를 미시적 관점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나'의 관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를 감정으로 말하고, 기후위기를 감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예술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감각할 때 비로소 기후위기 당사자로서의 고민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극에 관한 희곡 여덟 편을 쓴 샬탈 빌로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그녀는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 서사와의 작별을 고민하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 구조는 선형적이고 피라미드식 구조를 갖고 있다. 엔딩에 도달하기 위해 장애물을 만나고 이를 헤쳐 나가는 한 캐릭터가 존재한다. 주인공은 일종의 정복자 마음으로 이 복잡한 세계에서 단 하나의 서사만을 끌고 나간다. 그녀는 아리스토텔레스적 피라미드식 구조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관이 닮아 있고, 이 세계관의 문제가 기후위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식 구조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금의 인류는 착취의 계급사회, 즉 피라미드식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구조로 인간이 인간을, 인간이 동물을, 인간이 생물을,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는 이러한 착취와 폭력, 불평등의 구조를 통해 나타난다. 나는 샬탈 빌로도의 인터뷰를 통해 탈인본주의, 탈아리스토텔레스 구조, 비인간 서사, 비선형적이고 원형적인 구조에 대해 고민하고 싶어졌다. 기후위기를 다루는 예술에서 작품의 형식까지 기존의 관습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국내 처음으로 에코드라마트루그 도입

「기후비상사태: 리허설」을 제작하면서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 있었다. ‘에코드라마트루그’라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역할을 도입한 것이었다. 프로듀서 그룹 DOT의 박지선PD가 이 역할을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는데 대본, 연출, 기획, 홍보, 제작 모든 파트를 생태적 관점에서 고민하는 역할이었다. 사전 워크숍 단계에서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기획하고, 영국의 ‘The Theatre Green Book¹’ 사례를 프로덕션과 살펴보고, 국내외 기후위기 관련 예술에 대해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박지선 에코드라마트루그의 제안으로 프로덕션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약속문(文)’을 만들 수 있었는데 우리들의 약속문에는 제작에서 발표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으로 친환경, 저탄소 작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동의와 실천 항목들이 있었다. 이러한 제안들 덕분에 제작과정에서 파트별로 여러 시도들을 할 수 있었다.

창작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을 제작하면서 파트별로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고민을 하며 창작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 시도들을 공유해 본다.

무대는 최대한 국립극단에서 보유한 대도구를 사용했다. 새로운 제작을 최대한 줄이고, 제작을 하더라도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공연 후 폐기물품을 만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가능한 도색을 하지 않았다. 조명은 백열등 조명을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LED 조명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의상은 국립극단 의상실에 있는 기존 의상과 개인 옷을 활용하여 제작과 구매 없이 진행하였다. 또한 식물성 세제를 활용해 세탁을 진행하였다. 음악, 음향은 적은 전력으로 높은 출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소리 채집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이동 동선을 최대한 줄이고 대중교통과 친환경 차를 이용하였다. 분장은 분장 재료 선택에 있어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재료와 비건 재료를 사용하였다.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도 프로그램북, 포스터 제작에 있어 친환경 용지와 공기름 잉크를 활용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와 협업하여 제작 과정, 공연장, 관객 이동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계산하였다. 각 파트별로 지속가능한 창작을 위해 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기록이 국립극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후 노트」라는 이름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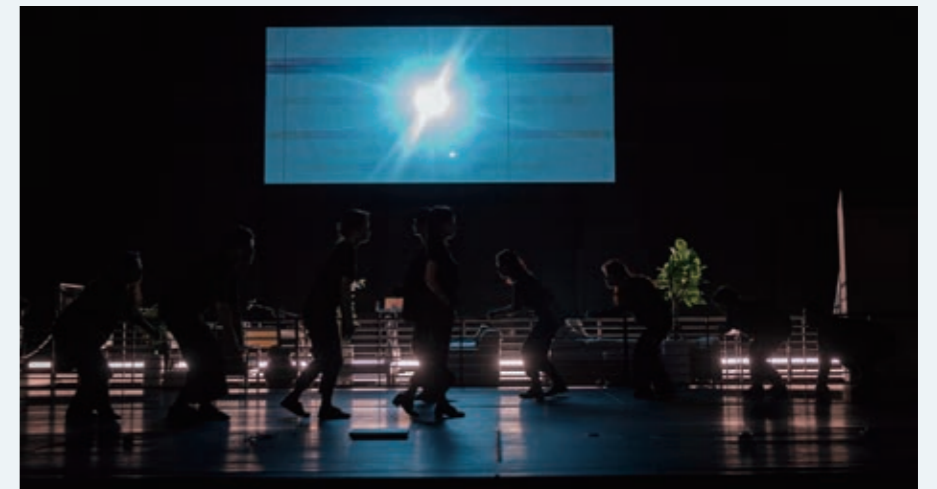
1 극장 제작자와 지속가능성 전문가를 모아 극장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공통 표준을 만든 책이다.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책은 1권 지속가능한 생산, 2권 지속가능한 건물, 3권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사진 나승열, 제공 국립극장

네트워크를 통해 기후 우울증(Climate anxiety) 극복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 창작자는 ‘기후 우울증’에 빠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 ‘내가 만드는 작품이 탄소발자국을 더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에 빠지거나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때 기후위기에 대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우울의 과정을 잘 돌보며 헤쳐 나와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예술을 찾아 나가는 것,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한 의제를 감각화시키는 것, 이 논의를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더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이 아닐까. 기후위기에 대한 더 많은 상상, 더 많은 언어를 만나고 싶다.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사진 나승열, 제공 국립극장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문화예술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우
영
석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No One Leave Behind),’ 2015년 유엔 제70차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슬로건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류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2030년까지 인류가 달성해야 할 구체적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빈곤·기아와 같은 사회문제와 일자리·산업혁신 등의 경제문제, 기후변화대응·생태계 보전과 같은 환경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 도구로 거버넌스와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화는 11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1)의 세부목표 11.4(Target 11.4)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언급된 내용은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이다. 이 목표는 단지 11번 목표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문화는 하나의 활동 부문이기도 하고, 다른 부문에 걸쳐 경계를 초월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대구에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문화예술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지구의 날 기념행사다.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지구환경 보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생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버바라 해상 기름유출 사고가 계기였다. 미국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과 대학생이었던 데니스 헤이즈가 1970년 4월 22일 뉴욕에서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규모 집회를 추진한 것이 시작이다. 지구의 날 캠페인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환경축제이자 캠페인이 되었다.

한국은 1990년, 대구에서는 1991년 첫 지구의 날 행사가 열렸다. 1991년은 낙동강폐놀오염 사고가 발생했던 해다. 대구의 첫 지구의 날 행사는 오염된 강과 하늘을 살리기 위한 문화제 행사로 신천둔치에서 열렸다. 시민의 일상이 바뀌려면 문화적으로 시민생활에 스며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999년까지 신천뿐만 아니라 동인공원, 동성로 등에서 열린 지구의 날 행사는 다양한 환경문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환경노래를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부르고, 재 활용 패션쇼를 개최해 폐기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도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다

대구 지구의 날 행사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그린 아트팔트(Green Artphalt)와 버스킹 페스타다. 그린 아트팔트는 예술을 의미하는 ‘아트(art)’와 도로 포장재 ‘아스팔트(asphalt)’를 합친 말이다. 버스킹 페스타는 차 없는 거리에 덩그러니 남아있던 버스 정류장을 무대로 버스킹 공연을 하는 행사다.

2000년 지구의 날 행사는 획기적으로 전환되었다. 대구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환경문제의 핵심이 자동차라고 생각했다. 자동차화(motorization)는 과잉생산과 대량소비문화를 만들고, 엄청난 화석연료를 소비하고 공기를 오염시킨다. 자동차는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잠식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거리는 소통과 만남, 문화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통과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자동차 중심의 거리는 우리 삶을 다양성과 매력이 넘치는 공간과는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대구 도심부터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대구에서 가장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 혼잡이 심했던 중앙로를 24시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 지구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바로 그린 아트팔트(Green Artphalt)와 버스킹 페스타다. 그린 아트팔트는 예술을 의미하는 ‘아트(art)’와 도로 포장재 ‘아스팔트(asphalt)’를 합친 말이다. 버스킹 페스타는 차 없는 거리에 덩그러니 남아있던 버스 정류장을 무대로 버스킹 공연을 하는 행사다.

늘 자동차로 붐비던 도로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공간으로 변했다. 그린 아트팔트는 시민들이 도로로 내려와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었다. 자동차가 다니던 아스팔트 바닥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거나 환경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명석을 깔았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인디053은 분필이 잘 부러지지 않게 직접 몽푃한 분필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신나게 참여했다. 거리에서 늘 차를 피해 다니기만 하던 아이들은 도로를 거대한 검정 도화지로 생각한 것 같았다. 아이들과 부모, 친구와 연인들, 혹은 혼자서 차 없는 도로를 온 몸으로 즐겼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도로는 당연히 자동차가 운행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해 왔다. 문화예술은 도로에 대한 이런 생각을 뒤집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차 없는 거리는 예술가들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그린아트팍트에 참여한 어린이>

버스킹 페스타(BusKing Festa)는 차 없는 거리에서 펼쳐지는 환경문화축제로 버스정류장을 무대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주제로 한 창작곡 경연대회다. 해를 거듭하며 주제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걷기와 자전거, 플라스틱 제로 등 다양하게 확장되었다. 전국의 문화공연 예술가들이 각자 창작한 곡을 들고 대구의 차 없는 거리 버스 정류장에 모여들었다. 개방된 거리에서 누구나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예술의 장이 펼쳐졌다. 공연이 열리는 버스정류장 주변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빼곡하게 들어찬다. 바닥에 앉아 자유롭게 음악을 듣기도 하고 노래가 전달하는 환경 메시지에 집중하기도 한다. 환경단체들이 외치는 구호는 강렬하다. 버스킹 페스타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는 포근하게 시민들 속으로 스며든다. 따뜻한 햇볕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하는 이슬우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차 없는 거리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위들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공감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시민 공감대는 더 많은 환경 정책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지와 실행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쉴 때 문화예술 지속가능성 담보

최근 가장 뜨거운 지속가능성 이슈는 단연 탄소중립이다.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브리즈와 함께 탄소중립 뮤지컬을 제작했다. 「지금부터 시작해」라는 제목의 이 뮤지컬은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피해와 원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등을 소개한다. 대구 지역 환경단체 총회, 대구국제폭염대응포럼 등에서 공연을 가졌다. 공연을 관람한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탄소중립이 너

무 어렵고 딱딱하게 생각되었는데 이렇게 쉽게, 마음이 뭉클하게 다가올 수 있어 놀랐다는 평가였다. 올해 8월에는 환경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개막식 축하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는 전국의 지속가능발전 활동가와 관련 공무원, 기업인 등 2천 명 이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대구에서 만든 탄소중립 뮤지컬이 전국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탄소중립 뮤지컬 「지금부터 시작해」 공연>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핵심이슈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당장 급격하게 줄이지 않으면 파국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당장 석탄발전소를 멈추고, 내연기관차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과격하고 급격한 변화는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시민들 스스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문화예술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일상으로 스며들어야 한다. 시민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할 때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도 담보된다. 스트라디바리, 과르네리, 아마티 등 현악기 역사상 최고의 명품들이 만들어진 도시 이탈리아의 크레모나에서는 시내 곳곳에서, 어디에서나 바이올린 선율을 들 수 있다고 한다. 특정 공간을 찾지 않더라도 도시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라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문화예술 향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이 여기에 담겨있다.



제3차
**생각
나눔
포럼**

Smiling 달서문화재단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한
도시축제의 발전방향 모색**

현대적 시대,
지속가능한 지역축제 개발을 위해 우리가 할 일

일시... 2022. 5. 20.(금) 14시~
장소... 달서아트센터 1001 와룡홀

제3차 생각나눔포럼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말 외에 모든 것은 변한다고 했던가. 최소한 이 지구상에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도태되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변화는 생존전략이며, 생명력 그 자체다. 몇 년 전 시작된 코로나19는 인간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지역을 홍보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축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축제가 자취를 감췄고, 몇몇은 모니터 속으로 들어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물론이고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공동체의 가치를 보존하고,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제’를 마련하기 위해 달서문화재단은 지난 5월 20일 달서아트센터 와룡홀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한 제3차 생각나눔포럼을 개최했다.



윤성진
한국문화기획학교
교장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한 도시축제의 발전 방향

코로나19로 인해 축제가 폐지되거나 취소 혹은 축소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이전의 축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가와 함께 축제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축제는 원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한 지역의 문화적 총체를 발견할 수 있는 현대적 제의(祭儀)라고 할 수 있다. 축제 안에는 전통 사회에서 축제가 가졌던 제의적, 기원적 성격이 프로그램으로 녹아 있다. 소원문을 써서 비는 것과 3천 명이 같이 비빔밥을 비벼 먹는 것 등이 그 예다. 또 축제는 지역 문화 생태계를 지키는 토양이고, 문화의 숲을 지키는 버팀목이기도 하다. 축제가 잘 만들어진 지역은 그 축제로 인해 지역 문화 생태계가 조성되고 번창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축제를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 등 축제의 전환기 맞아

축제는 살아있는 문화 유족으로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성장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지켜줘야 한다. 하지만 축제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녹록치 않다. 주 4일 근무제 도입 논의와 코로나 블루로 인한 정서적 단절감, 문화산업 분야의 빠른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절감, ESG 경영확산,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등이 축제 현장에서 고민해야 될 과제들이다. 축제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와 함께 축제의 추진 방식도 행정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문가에서 시민 중심으로, 거버넌스형으로 바뀌고 있다. 예술가 중심이 아닌 일상과 연계된 생활문화 중심의 축제로 전환되고, 디지털을 품은 뉴노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축제가 확대되고 있다. 자원조성은 고향세,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다양화되고,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사업보다는 인프라 지원으로 지원방식도 바뀌고 있다. 이외에도 전 지구적 관심사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과 연대가 일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형 축제로 전환해야

축제가 긴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축제로 전환돼야 한다. 미래형 축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선도적 가치를 문화 활동으로 구현해 지역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돕는 축제를 말한다. 미래형 축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강화 ▲본질적 가치의 회복 ▲공동체 가치와 정서적 관계의 중요성 확인 ▲디지털화로 인한 상실된 관계성의 극복 ▲전 지구적 선도 과제의 실천과 습득 ▲축제 생태계를 선도하는 지역 문화와 예술 생태계 구현 등이 수반돼야 한다. ▲친환경 예코 페스티벌 ▲시민주권형 지역 축제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를 반영한 하이브리드형 축제 ▲취향 공동체의 미니 페스티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연구와 축제 인식 전환을 위한 학습, 네트워크의 확장 and 연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축제들을 지속가능한 축제로 만들어가야 한다. 또 국제적인 정보 소통을 통한 과학적 수요 파악도 현재 도시 축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요구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The 3rd
thoughts - sharing forums



조영선
문화기획
아로리 대표

도심 거리예술축제의 새로운 도전

- 서울 거리예술축제를 중심으로

거리예술은 전통적인 예술의 특성을 뛰어넘는 복합적인 장르로써 고유의 미학적인 측면과 공간과의 관계를 통한 작품의 구현이라는 특징을 지닌 예술의 유형이다. 도로나 공원, 광장 등 야외에서 행해지며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도 특징이다.

서울의 거리예술축제는 2003년 '하이 서울 페스티벌'로 시작해 올해로 20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빠짐없이 진행돼 왔다. 처음 시민문화형 축제(2003 ~ 2007년) 형태로 시작해 궁(宮) 축제(2009), 시민참여형 난버벌 공연예술 축제(2010 ~ 2012년)를 거쳐 2013년부터 거리예술축제로 진행되고 있다. 거리예술축제도 2018년까지는 주로 서울광장과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중심부의 대표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대형 공연 등을 진행해 왔다면 2019년 이후부터는 도시와 공간을 재해석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중심에서 외곽으로 공간성의 확장

서울의 거리예술축제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분야와 함께하는 거리예술을 모토로 하고 있고, 공간성을 큰 미션으로 두고 있다.

2018년까지는 주로 서울광장과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중심부에서 공연과 퍼레이드 등을 진행해 왔다. 전통적인 호형과 역사성 등을 배경으로 적극 활용한 것이다. 2019년부터는 광장의 중심부를 공연 무대로 내주고, 관객은 가장자리를 차지했던 과거와 달리 시민들이 중심에 들어와 직접 참여하는 광장의 점유 방식도 새롭게 시도해 왔다. 또 서울 중심부가 아닌 창신동이나 문래동, 노들섬 등 중심 이면의 공간들과 도심 속 여러 스콧을 무대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분산형 축제를 통해 사람과 동네, 거리를 재발견하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거리축제의 지향점과 고민

광장과 거리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연대와 공감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거리예술축제는 사회적 공감과 사회와 시대에 유효한 질문과 고민이 투영돼야 하며 시민들이 그리는 축제의 상(像)과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광장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사라져가는 공간과 장소의 재발견, 고찰도 진행돼야 한다. 또 예술가와 예술가, 예술가와 시민, 시민과 시민 등의 적절한 거리를 고민하고, 새로운 관객을 발굴하고 지지층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용석
감독

주민주도형 도시브랜딩 축제

- 인천시 연수구 연수°C 페스타 중심으로

정체성 유지하고, 10년 이상 꾸준히 진행해야

국내에서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축제로는 함평의 나비축제와 보령의 머드축제를 들 수 있다. 함평 하면 누구나 나비축제를 떠올리고, 함평군의 쌀 브랜드인 나비쌀은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쌀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좋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보령 머드축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한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소개되고 있다.

함평 나비축제나 보령 머드축제가 전 국민에게 지역 브랜드로 자리 잡는 데까지는 10년 이상 걸렸다. 해마다 전국에서 수많은 축제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곤 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축제를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주민주도형 축제여야 정체성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어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바뀌는 담당 공무원과 대행사가 주도하는 축제가 아닌 그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여야 한다.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도해 나간다면 주민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정체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해 변별력 있는 프로그램들이 주가 되는 축제가 된다면 연예인 의존도는 약해지고 차별성과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진다.

5개월에 걸쳐 시민기획자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주도형 축제 진행

인천시 연수구는 기존 축제에 대한 인식이나 지명도, 만족도 등이 기대에 못 미치자 지난해 주민들이 연수구 곳곳에서 자발적인 축제를 만들어가는 플랫폼형 '연수°C 페스타'를 진행했다. 주민들이 직접 기획·실행까지 진행했고, 지역을 잘 아는 축제기획자문단과 전문가 그룹인 축제기획단이 주민들이 낸 좋은 아이디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촉매자로서 지원했다. 사전에 5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축제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20명이 실제 시민기획단이 돼 축제를 기획했다.

연수°C 페스타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Festa의 알파벳순으로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F(Field)는 연수구의 인적자원과 공간의 특징을 파악, E(Engagement)는 축제의 주인공인 주민들을 교육하고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관계 맺기, S(Story)는 함께 축제를 상상하고 축제의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 T(Target)는 축제의 주제와 콘셉트를 도출하고 역할 분담, A(Action)는 실질적인 역할분담과 실행계획 수립 등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축제의 주제를 알리는 개막 공연(범개댄스로 연수구의 관광지 등 소개)부터 장소 특화형 프로그램(능허대 등에서 이색 프로그램 진행), 행사장 연계형 프로그램(연수구 전반의 워킹 미션 등), 작은도서관 연계 프로그램(동화책 낭독, 테라스 공연 등 공원과 책, 사람이 어우러지는 힐링 프로그램) 등 주민들이 기획한 다양한 콘셉트의 축제들이 진행됐고,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만족도는 높았다.



정헌영

(주)그린임팩트 대표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축제

- 한강몽땅축제를 중심으로

3대 목표 설정해 5개 프로세스로 추진

책 Sustainable Event Management(지속가능한 이벤트의 관리)에는 야외에서 진행된 유럽의 모 축제에서 이동화장실을 이용한 후 대소변을 퇴비로 전환해 지역 농장에 나눠 주는 프로세스까지 소개돼 있다.

2013년에 시작된 '한강몽땅축제'는 한강을 무대로 시민과 예술가, 민간기업, 지자체가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플랫폼형 도시문화축제다. 지난해에는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해 ▲제로 웨이스트 ▲새로운 지속가능한 축제 모델 생성 ▲체계화된 시스템의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이들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추진방침 표명하기 ▲주요 이슈 평가하기 ▲목표 설정하기 ▲중요 단계 주목하기 ▲주요 성과 도출 및 공유하기 등 5가지 프로세스를 추진했다.

24개 실천 목표 설정... 철저한 모니터링 통한 점검, 백서 통해 공과(功過) 공유

한강몽땅축제의 경우 1차적으로 173개의 이슈를 뽑았고, 다시 55개로 추려서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24개 실천 목표를 설정해 진행했다. 이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슈들을 제기하고 함께 우선순위를 뽑는다면, 설령 본인이 낸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키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또 그만큼 실천의지가 높아진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실천 가능한가'와 '꼭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지속가능한 이벤트 관리를 위해 '한강 청년 코디네이터'라는 뉴딜사업을 통해 축제 교육을 받은 30 ~ 40명의 청년들을 기획자나 스태프로 적극 활용했다. 이들에게 사전에 지속가능성 이벤트 매니지먼트가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지 등을 교육했다. 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팀원들이 현장에서 꼼꼼히 모니터링하도록 주지시켰다. 실제 행사에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니터링해야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

몇 가지 실천 사례를 예로 들면 홍보물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것을 여러 번 재활용했고, 행사 안 내는 전단지나 리플릿 대신 전자적인 매체로 바꾸는 시도를 해 인쇄물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했다. 또 야외 축제에 사용되는 용기는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기를 시범적으로 활용했다.

축제 후에는 이슈의 선정 이유와 과정, 실천방법, 공과(功過) 등 축제의 전 과정을 가감 없이 정리한 백서를 발행해 공유했다.

토론 '지속가능한 지역 축제 개발을 위해 우리가 할 일'

발제 및 사례발표 이후 대구경북연구원 오동욱 연구위원이 좌장으로 나서 포럼 발표자와 지역의 달성문화재단 김성수 문화정책실장, 행복북구문화재단 김병수 문화정책팀장, 수성문화재단 배은진 문화정책팀장과 함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지역 문화재단 관계자의 발언과 질의를 듣고, 포럼 발표자가 의견과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시민기획자 양성이 중요

김성수
달성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축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왔다. 달성문화재단은 지난 2년간 문화도시를 추진해 왔고, 지난해에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지만 아직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참여 등 많은 고민들을 했다. 축제를 세우기 전에 교육을 통해 축제를 함께할 수 있는 주민들을 양성하는 방법을 먼저 계획하고, 그런 다음 교육을 통해 양성된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은 기획이라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잘 풀어나간다면 참여하는 주민들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참여나 접객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기간을 길게 잡고 시민들을 믿고 촘촘한 계획을 짰을 때, 참여율도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민이 행복한 축제라야 한다

김병수
행복북구문화재단
문화정책팀장

지자체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와 관광효과를 높이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원형 자원 홍보 및 특산물 판매를 위해서라고 한다. 행정기관의 시선이 그렇다면 축제가 아니라, 이벤트다. 축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축제와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에 대한 포맷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또 주민이 즐겁고 행복한 축제여야 지속가능한 축제가 될 것이다. 2019년 대구시 청사 이전 이슈가 부각됐을 때, 모든 축제에서 신청사가 주인공이 돼버렸다. 주민들이 행복한 축제는 설 자리가 없었다. 이러한 나쁜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좋지 않은 것은 지자체들이 연대해서 회피하고, 반대로 좋은 것은 연대해서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대구에서 새로운 모델들을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시민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 축제 담당자 1명이 도맡아 하는 실정이다. 연수C 페스티벌이나 서울의 축제에서 시민 추진단을 구성해 실행한 사례가 있으니, 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으면 한다. 그러면 우리도 지속가능한 축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The 3rd thoughts - sharing forums

**주민 주도로 하되,
참여 주민이
또 다른 권력이
되는 것 경계해야**

배은진
수성문화재단
문화정책팀장

수성구는 공연예술 축제인 수성못 페스티벌(가을)과 야외 빛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수성빛예술제(겨울)라는 두 가지 큰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수성빛예술제의 경우 전시하는 작품의 반 이상이 주민들의 작품이다. 지난 3년간 주민 참여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빛예술학교」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축제의 생태계에서 자생력을 키우고,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의 역량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축제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경험적 결과물들을 다음 축제에 활용하기 위한 학교다. 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을 추후 축제의 기획자로도 활용할 수 있는 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한다. 주민들이 축제 참여를 통해서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해 본 결과,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축제에 대한 첫걸음을 잘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를 거듭하면서 수성빛예술학교에 관여했던 분들이 또 다른 권력의 중심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다. 또 상인들의 참여가 배타적이라 상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대한 고민이 있다.

사회자 행복북구문화재단을 비롯해 대부분 축제 담당자가 한 명 내지는 두 명밖에 안되니 축제를 진행하기 만만치가 않다. 그런 부분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성진 교장 「작은 축제학교」는 시민 축제 교육을 한 20년 정도 해오고 있다. 처음 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주민주도형 축제에 대한 생각 자체가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사회단체나 학교, 전문가와 협업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지역이 많이 늘었다. 은평누리축제 시민추진단은 10회 정도 교육과 토론 훈련을 받고, 주민 추진위원회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까지 한정해서 진행했다. 진주시는 멘토링 형태로 주민들이 낸 기획안에 예산을 지원해 실행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작은 성취의 경험들을 만들어줬다. 일부의 시민들이 축제 기획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이 주민주도형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자기 프로젝트의 예산 주도권을 갖고 실행해 보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축적되는 과정이 지속돼야 한다. 적어도 3년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주도의 축제로 가기 위한 시민 교육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도 전문영역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자 축제 참여자가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 잡는 것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길 바란다.

조영선 대표 예술계나 문화 기획 분야에서도 특정 그룹이나 지역에서 누군가를 통하지 않으면 진입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한 고민은 늘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민 교육 모집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다양한 층위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간에 긍정적인 견제가 생겨야만 극복할 수 있다. 또 목소리가 큰 주민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목소리가 작은 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노력들도 필요하다.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편안하고 좀 느슨한 활동들도 설계가 되어야만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민1 정현영 대표께 질의하고 싶다. 축제의 여러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과잉성이라고 생각한다. 일명 오버를 통해서 흥과 재미를 더한다. 그런데 지속가능한 축제는 절제와 억제 이런 것들이 수반된다. 과잉성과 억제성 간에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지 궁금하다.

정현영 대표 균형점 찾는 것은 항상 어려운 문제다. 지속가능 이벤트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축제가 원래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간섭하거나 뭔가 개입해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운영적 방식에 있어 사회적,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들을 좀 줄여가자는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고, 도전해서 해결할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뽑아서 도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단체장이 축제는 다 탄소중립으로 해라고 하면 불가능하다. 대신에 그런 지향점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고 균형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2 조영선 대표께 여쭙보고 싶다. 2018년에는 시청 앞 광장을 무대로 굉장히 큰 공간에서 많은 인원들이 함께하는 임팩트가 있는 형식이었는데, 최근에는 논의를 통해서 여러 스폿으로 나눠서 다양성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간 것 같다. 어떤 논의를 통해서 다양성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가게 됐는지, 그렇게 했을 때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조영선 대표 대형 공연이 임팩트가 있지만 양면성이 있다. 준비 단계부터 공연이 끝날 때까지 광장을 점유해 나머지 어떤 행위나 공연들은 장소를 양보할 수밖에 없다. 기회비용이 많이 든다. 또 세종대로의 경우 길을 막고 정리하는 등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방식을 새로이 생각하게 됐고, 다른 것을 보여주는 형식을 찾아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험요소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은 그냥 일회성의 큰 공연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광장을 중심으로 조금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 한두 가지 정도를 진행하되, 바깥의 영역을 바라보는 프로그램들도 의도적으로 조금씩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사회자 오늘 발제와 토론을 대표해서 윤성진 교장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윤성진 교장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축제인 뮌헨의 옥토퍼페스트에는 해마다 약 6백5십만 명이 방문한다. 축제가 진행되는 16일 동안 6백5십만 명이 단 한 개의 일회용품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축제는 시민들이 습관을 만드는 중요한 캠페인의 공간이기도 하다. 축제가 어떤 시도들을 할 때, 시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육받아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시도들을 하는 곳들은 많이 있다. 또 주민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의문을 가지는데, 캐나다 캘거리 스탬피드축제 주민 추진위원회의 예산은 천억 원이나 된다. 그 가운데 축제 예산이 약 2백억 원이다. 2천 명의 자원활동가가 추첨을 통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들의 권력은 봉사하는 권력, 헌신하는 권력이다.

with Dalseo

.....

달서의

문화·人 이야기



문화의 맥(脈)이 흐르는 이야기와
문화 향유의 공간,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화제의 장소를 담았다.

상화(尙火)와 빙허(憑虛),

21세기에 다시 만나다



상화와 빙허는 일제강점기를 치열하게 살다 간 대구 출신의 문학인이자, 독립운동가다.

사실주의 문학 선구자 빙허(憑虛)

빙허 현진건은 1900년 대구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시절 「빈처(貧妻)」, 「운수 좋은 날」, 「술 권하는 사회」, 「고향」 등의 단편소설을 발표해 리얼리즘 문학의 선구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현진건은 작가로서의 작품성 외에도 동아일보 사회부장 시절이었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일본 대표로 출전해 우승을 차지한 손기정(孫基禎)의 유니폼에 그려진 일장기를 지우고 신문에 실은 사건(일장기 말소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 사건으로 인해 현진건은 1년간 옥고를 치르고 동아일보를 사직해야만 했다. 그 후 글을 쓰면서 양계로 호구를 이어간 그는 잠시 동아일보에 복직하기도 했지만 가세는 빈한했다. 원고료와 양계만으로는 생계를 해결할 수 없었던 현진건은 미두(쌀의 시세를 이용해 현물 없이 쌀을 사고파는 투기 행위)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양계장과 집을 처분해야만 했다. 집을 처분하고 신설동 고려대학교 정문 앞 제기동의 조그만 집으로 이사해 그 곳에서 말년을 보내다 1943년 4월 25일 자병이었던 폐결핵과 장결핵으로 숨을 거뒀다.

경상의 불꽃 상화(尙火)

상화 이상화는 1901년 대구에서 태어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의 침실로」, 「말세의 희탄」 등의 시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비판한 저항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교과서에 실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시다. 이상화는 빼어난 시인이기 전에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기도 했다. 1919년 대구에서 친구인 백기만 등과 3·1운동을 모의하다가 발각돼 도피생활을 해야만 했고, 1927년 의열단 사건, 1928년 독립자금마련을 위한 '그당사건' 등으로 구금되기도 했다. 또 1936년 만주에서 독립군 활동을 하고 있는 형 이상정 장군을 만나 국내에서의 독립운동 등을 논의하고 돌아오던 길에 일경에 체포돼 구금됐다. 얼마 후 가석방으로 풀려나온 후 교남학교(대륜교 전신)에서 조선어와 영어, 작문 등을 가르쳤고, 권투부를 창설해 지도하기도 했다. 이상화는 "약소민족은 주먹이라도 잘 써야 된다"며 학교 체육대회 종목에 권투를 넣었다고 한다. 1940년 말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주로 생활하며 독서와 연구, 번역 등에 몰두했다. 1943년 3월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4월 25일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서로가 받지 못한 부고(訃告)

현진건의 부고는 대구 서성로에 있는 이상화 집에도 전해졌다. 하지만 부고가 당도했을 때 자택에는 빈소가 차려져 있었다. 그날 아침 상화는 위암과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이미 생을 마감한 뒤였다. 어릴 때부터 친한 벗이었던 두 문인은 그렇게 서로의 부고를 받지 못한 채 같은 날 마흔을 갓 넘긴 짧은 삶을 마감했다. 빙허가 42세(만), 상화가 42세(만) 생일(음력)을 2주일 남짓 앞둔 4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었다.

살아서 서로를 응원하고 의지했던 친한 벗은 그렇게 어깨동무하듯 한날 생을 마감했다. 그 덕에 서로는 물론, 가족들조차 서로의 문상을 하지 못하게 됐다. 빙허는 후사로 아들 없이 고명딸만 뒀고, 고명딸 현화수는 두 달 전에 문우였던 월탄 박종화의 외아들과 결혼



1 1948년 달성공원에 세워진 국내 최초의 시비 상화시비

2 상화기념관·이장기문화관 전경



3

했다. 빙허의 시인은 화장해 지금의 서초동에 유해를 안장했다. 그 후 1970년대 강남개발로 이장해야 할 처지가 되자 사돈인 박종화가 유해를 한강에 뿌렸다고 한다. 상화는 후사로 아들 셋을 뒀으며, 현재 대구시 달서구 대곡역 인근에 있는 선영에 가족들과 함께 안장돼 있다.

『개벽』과 『백조』 통해 각각 문단에 이름 올려

1917년 현진건, 이상화, 백기만 등은 대구에서 습작 동인지 『거화(炬火)』를 발간했다. 거화는 본격적인 동인지라고 하기 보다는 작문지 수준에 가까웠다. 현진건은 1920년 문예지 『개벽(開闢)』에 『희생화(犧牲花)』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약관의 나이에 이미 ‘빙허라는 아호를 쓰고 있었다. 빙허는 ‘허공에 의지한다’는 의미로, 중국 송(宋)나라의 문인 소식(蘇軾)의 『적벽부(赤壁賦)』 가운데 ‘넓기도 하구나, 허공에 의지하여 바람을 타고서(浩浩乎! 憑虛御風而)란 구절에서 따왔다고 한다. 이상화는 1922년 1월 『백조』 창간호에 『말세의 회탄』, 『나의 침실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이후 『백조』, 『개벽』, 『문예운동』, 『삼천리』, 『별건곤』

3 2022년 4월 24일 상화기념관·이장가 문화관에서 거행된 79주기 합동추념식

4 두류공원 인물동산에 있는 현진건 문학비



4

등 잡지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대구 행진곡』, 『서러운 해조』 등 6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다.

사후에 독립훈장 등 추서해 정신 기려

이광수, 최남선, 김동인, 주요한 등 동시대 이름난 작가들이 친일 이력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빙허와 상화는 친일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 주변의 문인들이 친일에 부역할 때 오히려 붓을 더 곳곳하게 세우고 항일을 주창했고, 절필할지언정 일제를 찬양한 일은 결코 없었다. 이들이 항일한 것은 가계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현진건의 셋째 형 현정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돼 반년 만에 옥사했다. 그러자 형수도 형을 따라 자살했다. 1932년의 일이다. 이상화의 형 이상정은 1920년대부터 독립군에 투신해 광복의 날까지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한 독립군장군이였다. 동생 이상백도 일제강점기 말 독립운동단체에 가담해 독립운동을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진건과 이상화 사후에 이들의 독립운동정신을 기리고자 독립훈장을 추서했다. 현진건은 2005년 8월 15일에 건국공로훈장 독립장(3급)이 추서됐고, 이상화는 1977년 대통령표창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각각 추서됐다.

대한민국 최초의 詩碑와 기념비들

1948년 3월 14일 달성공원에 대한민국 최초의 시비(詩碑) ‘상화시비(尙火詩碑)’가 세워졌다. 김소운, 이윤수, 구상 등 시인들이 중심이 돼 건립했으며, 시비에는 막내아들 이태희의 글씨로 시 『나의 침실로』 일부가 새겨져 있다. 두류공원 인물동산에는 현진건의 문학비를 비롯해, 이상화의 시비, 백기만, 이장희 등 친구들의 비가 나란히 서 있다. 또 수성못 상화동산에는 상화와 그의 친구들로 현진건의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현재 이상화의 시비는 달성공원(『나의 침실로』 일부)을 비롯해 수성못 상화동산과 중구 이상화 고택, 달서구 두류공원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달서구 대곡역에서 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 가는 길에 『나의 침실로(전문)』 등 대구에만 5개가 세워져 있다. 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 관계자는 “후손들 입장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만 주로 알려지기에 『나의 침실로』 시비를 지난해 새로 세웠다”며, “달성공원에는 시 내용 일부가 새겨져 있지만 이곳에는 전문이 다 담겨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후 78년 만에 재회한 빙허와 상화

2021년 4월 25일 오후 5시, 대구시 중구 서문로에 있는 카페 라일락뜨락에서 이상화·현진건 선생 78주기 합동추념식이 거행됐다. 라일락뜨락은 이상화가 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생가로, 현재는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추념식은 헌차와 묵념으로 시작됐고, 이어 이상화의 시 『독백』과 『말세의 회탄』, 현진건의 소설 『고향』을 낭송해 두 문인의 문향(文香)으로 카페마당을 가득 채웠다. 곧이어 노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울려 퍼졌다. 1976년 음악교사였던 작곡가 변규백은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곡을 붙여 노래로 만들었다. 그 후 1984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음반으로 취입해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음반을 취입할 당시 정확한 가사 전달을 위해 많은 부분을 얼마 전 작곡한 김민기의 낭독으로 처리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절 민중가요로 대학생들 사이에 널리 불리어졌고, 현재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올해 이상화·현진건 선생 79주기 합동추념식은 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대구 달서구 명천로 43)에서 4월 24일 오후 5~7시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대구를 연구하는 독서모임 구구단(究丘團·의백 이원호), 대구역사탐방단(공동대표 강성덕·오규찬), 참작가 현진건현창회가 주최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이현우 경주시씨 화수회 총회장 등 종친을 비롯해 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차, 묵념 등에 이어 상화 오케스트라의 대구행진곡, 광복군가 축하공연, 시낭송,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은 2017년 경주 이씨 이장가(李庄家) 후손들이 사비를 들여 선영 인근에 개관했다. 이장가는 상화의 조부인 이동진 선생이 재산을 가족 및 친지에게 나누어준 일을 ‘이장’이라 불러 붙여진 가문이름이다. 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에는 상화는 물론 형 이상정 장군, 동생 이상백 전 IOC위원, 이상오 저술가 등 4형제와 이장가의 유물(책, 편지, 사진, 그림 등) 300여 점이 전시돼 있어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이장가 사람들의 민족 계몽운동 및 항일 독립운동의 업적을 살펴볼 수 있다. 해마다 합동추념식은 이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보고 배우고 즐기면 행복하지 아니한가

주민들의 문화예술 놀이터 생활문화센터

달서문화재단 내 생활문화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 문화예술을 마음껏 즐기는 곳이다. 센터는 장기점과 송현점 두 곳이 있으며 문화예술을 직접 배우는 교육프로그램과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관시설(연습장, 회의실, 전시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을 직접 배우는 강좌는 특히 인기가 높다.



현재 장기점에서는 4개의 프로그램이, 송현점에서는 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또 방음시설이 완비된 동아리방은 '달서노인아카데미'와 같이 동아리 회원들이 매주 대관하여 사용하고 있다. 달서생활문화센터는 미술작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타 생활문화센터와 차별점을 두었다. 생활문화센터 관계자는 "전시 공간은 전문작가가 아닌 아마추어 동아리 회원을 위해 열려있는 공간이니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달서생활문화센터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장기점...「손끝으로 담는 달서」

「손끝으로 담는 달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내가 찍은 사진에 나만의 글씨체로 시를 써 나만의 책으로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 강사를 통해 시를 짓는 노하우, 사진 구도와 캘리그래피, 종이를 책으로 엮는 방법 등을 배워 한 권의 책을 수제로 만들게 된다. 마을공동체나 동아리 등에 속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문화 활동의 기회가 적은 중장년층에게 생활 속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참여자 작품들로 꾸러질 시화전(11월 말 개최 예정)을 통해 내가 생산한 창작물로 이웃과 소통하며, 콘텐츠 창작자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도 있다. 높은 호응도를 보인 본 프로그램은 7월 중 1기 운영을 마무리 짓고, 9월 13일부터 2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구를 구하는 달서 히어로즈」

저탄소 생활 실천 프로그램 「지구를 구하는 달서 히어로즈」



는 지구와 친구가 되는 8가지 방법을 매시간 1가지씩 알려주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다. 미세 플라스틱, 자원순환,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를 학습으로 익히고, 친환경 생활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체험으로 습득할 수 있다.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송현점...「꽃이야 나무야」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도시에 내가 좋아하는 꽃과 식물이 자라는 정원을 만들 수는 없을까. 강수량이 적은 사막에서 신선의 손바닥처럼 생긴 선인장(仙人掌)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지? 「꽃이야 나무야」는 그림책 『메이의 정원』과 『선인장 호텔』을 읽으며 책 내용과 연계된 원예활동이다. 책을 읽은 후의 감정과 생각을 정원꾸미기나 화분심기로 시각화시키고, 이웃과 소통하는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식물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 받았으면 하는 취지로 마련했다. 여름방학 기간(7. 25. ~ 8. 22.)에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바실마실 - 힐링 프랑자수」

자투리 천과 단추 등에 프랑자수를 놓아 나만의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와펜(문장(紋章)) 제작방법 습득을 통한 의류 리폼(Reform)으로 주민들의 저탄소 활동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지수를 활용한 손거울 만들기, 와펜으로 의류 리폼, 와푸리를 활용한 키링(key ring) 만들기 등 바늘과 실을 활용해 다양한 수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아코디언 소리가 기가 찹니다!”

아코디언은 삶의 활력소,
동아리는 행복발전소



달서노인아코디언 동아리 전인환 회장(75세)에게 많은 악기 중에 왜 아코디언을 선택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코디언으로 옛날 노래를 연주하면 그 소리가 기가 찹니다”라는 답이 되돌아왔다. 2017년 여름,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 셋이서 달서생활문화센터를 찾아왔다. 생활문화센터 내 연습실을 대관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회원 수는 처음 3명에서 20명으로 늘었고, 일주일에 이틀씩 생활문화센터에 와서 연습을 하니 자연스럽게 연주 실력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다.



생활에 활력이 생겼고, 연습이 있는 수요일과 목요일 아침은 늘 기다려졌다. 아코디언 동아리가 활성화되자 복지관이나 전통시장 등 여기저기서 아코디언 소리를 들려달라는 요청이 와 연주 봉사활동도 자주 했다. 구청을 대표로 시니어박람회에 참가해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동아리에 참여하겠다고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이들도 더러 생겼다. 하지만 동아리가 달서구 소속인 만큼 달서구 외 주소를 둔 경우는 회원이 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아예 달서구로 이사 온 회원도 있다.

동아리 참여 위해 집도 옮겨

동아리의 막내인 배경숙(62세) 총무는 서구에서 부부가 함께 하모니카를 배웠다. 그러다 우연히 달서구 아코디언 모임을 알게 돼 모임에 참가했다. 당시에는 회원들의 주소를 엄격히 통제하지 않았고, 특별(?) 케이스로 회원이 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주지를 달서구로 제한했고, 배 총무는 남편을 설득해 결국 달서구 성당동으로 이사를 왔다.

배 총무는 “아코디언 모임이 이렇게 활성화 된 곳은 드물다. 달서구노인아코디언 동아리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모임”이라며, “남편도 집에 손님이 오면 아코디언 소리를 들려주라고 할 정도로 외조를 잘해준다”고 말했다.

2019년 말 창궐한 코로나19는 동아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 강력한 거리두기 제한으로 함께 모여 연습할 수가 없었다. 방역지침에 따라 플레톤 시스템으로 수요일 4명, 목요일 4명씩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했다. 기간이 길어지면서 동



아리의 생기도 점차 사라져갔다.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보낸 뒤 정부의 거리두기제한이 완화되면서 지난 6월부터 모두가 모여 연습하고 있다. 다시 동아리에 생기가 넘쳤고, 웃음꽃이 아코디언 선율과 함께 연습실을 가득 메웠다. 전인환 회장은 “지금은 몸이 불편해 못 나오는 몇 명을 빼고 13~15명씩 참여할 정도로 출석률이 좋다”며 “아코디언이 삶의 활력소이고, 동아리가 행복발전소”라고 말했다.

회원들의 연령은 62~80세까지, 70대가 대부분이다. 회원 중에 여성분이 3명이다. 여자가 적은 이유는 10kg라는 비교적 무거운 아코디언을 메고 연주를 해야 하니 아무래도 가녀린 여성에게는 힘이 든다.

정신과의사들에 의하면 ‘악기연주를 하면 뇌 속의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고 한다. 세로토닌은 부정적인 감정과 충동을 조절해 온화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뇌 속 물질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물질이다. 달서노인아코디언 회원들이 70이 넘는 나이에도 함께 어울려 10kg에 달하는 무거운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이유다. 전 회장은 “아코디언을 연주하지 않았다면 동네 공원에서 남들 장구나 바둑두는 것을 구경하다 하루를 소일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음시설이 갖춰진 달서문화재단의 훌륭한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원 중에는 빼어난 실력으로 연주를 통해 용돈을 버는 이도 있다. 당연히 회원들 사이에 부러움의 대상이다. 전 회장과 배 총무는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산에서 시내야경 · 별 보며 하룻밤



달서 별빛캠핑장



도심 속 캠핑장... 야경 즐기며 추억 새록새록

대구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캠핑장. 일명 '도심 속 캠핑장'으로 불리는 달서별빛캠핑장은 앞산순환로 248, 앞산의 얇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 대구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가장 좋은 캠핑장이다. 지난 2018년 개장한 달서별빛캠핑장은 산 아래로부터 위를 향해 데크캠핑장과 오토캠핑장, 카라반 등 3가지 형태의 총 55면으로 조성돼 있다. 데크캠핑장 중에는 숲속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잘 수 있는 숲속데크캠핑장이 별도로 조성돼 있다. 데크와 오토캠핑장이 각각 15면씩, 카라반 14대, 숲속데크캠핑장이 11면이다. 카라반은 6인용이 9대, 4인용이 5대다. 카라반에는 냉난방시설이 설치돼 있고,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기포트 등 전자제품과 냄비와 프라



이팬 등 주방용품들이 구비돼 있다. 부대시설로는 물놀이장과 놀이터, 잔디광장, 사위장, 취사장 등이 마련돼 있다.

앞산에 위치해 있다 보니 주중에 퇴근 후 곧장 오는 이용객들도 많은 편이다. 낮에는 도심전경을, 밤이면 대구 시내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시지에서 4인용 카라반을 예약한 정대섭 씨는 "시험공부에 지친 아들과 함께 쉬면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처음 이곳에 왔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캠핑장이 있는 줄은 몰랐다"며 "불과 지척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일상이 보이는데, 숲 속에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으니 매력적인 곳"이라고 말했다.

캠핑장 입구에는 달서목재문화관이 있어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캠핑이라면 미리 예약해 아이들과 함께 목공체험도 즐길 수 있다. 캠핑장 주변에는 앞산 둘레길과 월광수변공원, 숲속생태놀이터, 월곡역사관이 자리해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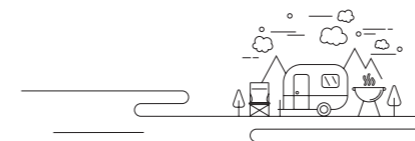
구청에서 운영해 믿을 수 있어 한겨울에도 주말이면 100% 꽉 차

토요일 오후 3시가 지나자 캠핑객들이 속속 들어왔다. 잠시 후 거의 모든 데크에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빈 데크는 보이지 않았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초, 대프리카라는 별호를 가진 도시답게 수은주는 연일 30도를 훌쩍 넘기고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피서를 나온 가족단위의 캠핑족들이 많았다. 연인과 친구들, 회사동료 등이 함께 온 팀들도 제법 있었다.

상인동에서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온 최현정 씨는 "아직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 아무래도 아이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가기는 꺼려진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캠핑장을 찾았다"며 "집에서 10분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 아이들과 가끔 와서 하룻밤을 보내고 간다"라고 말했다.

캠핑장 관계자는 "4계절 내내 주말에는 100% 예약이 꽉 찬다. 주중에도 일기가 험하지 않으면 3분의 2 이상 찬다"면서 "주말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예약해야 하고, 운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별빛캠핑장이 인기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도심에 있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다. 또 시설이 깨끗하고, 구청에서 운영해 믿을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캠핑장 예약은 홈페이지(dalseocamp.kr)를 통해 가능하며, 1회 예약으로 최대 3박 4일간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달 사용을 매월 2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받으며, 달서구민은 일부 시설에 한해 하루 전인 매월 1일 오후 2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주중과 주말, 성수기(7월 1일 ~ 8월 31일)와 비수기의 이용 요금에 차이가 있고, 할인되는 대상도 많으니 예약을 할 때 할인에 해당이 되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입장은 당일 오후 2시(카라반은 3시)부터 가능하며, 퇴장은 익일 오후 12시다.





아이와 함께 목공 체험하러 오세요!

지난해 말 개관한 달서목재문화관... 아이들에겐 놀이터, 부모에겐 힐링 공간

6월 25일 토요일 달서별빛캠핑장 초입에 자리 잡은 달서목재문화관. 점심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들이 하나둘씩 꼬리를 물고 들어왔다. 4~7세가량 돼 보이는 아이들은 1층에 들어오자 금세 부모 손을 뿌리치고 전시관 여기저기를 냄새 맡듯 종종걸음으로 다니기 시작했다. 달서목재문화관 1층에는 종합전시실과 나무상상놀이터 등이 있어 취학 전 아이들이 마음껏 놀면서 나무와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전시실에는 숲과 나무 이야기, 다각도로 보는 목재, 나무의 변신, 목재와 인간, 함께하는 미래 등 5가지 코너로 나눠, 영상과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목재가 되기 전 나무에서부터 목재로 활용되는 과정을 볼 수 있고, 나무의 단면과 생김새, 향, 소리, 촉감 등을 직접 느껴 볼 수도 있다. 또 전시실 맞은편에 위치한 나무상상놀이터는 나무요새와 나무와 관련된 책이 있는 서가,



어린이 맞춤형 목재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나무요새에서 아이들은 미로 구조물 속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신체능력을 키우고, 감각 체험을 통해 인지능력을 키울 수 있다. 목재의 소리를 들어보고 도끼 체험, 망치 체험, 결구법 체험 등 어린이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서가에서는 나무와 목재, 산림에 관련된 어린이 도서를 비치해 쉬면서 독서를 할 수도 있다. 특히 미로형태의 구조물을 오가고, 수천 개의 나무알갱이가 가득 채워진 공간에서 손과 발로 촉감을 체험할 수 있는 나무요새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초등학교 아이와 부모 등 가족으로 보이는 여러 팀이 달서목재문화관으로 들어왔다. 20명 정도의 송현2동 우리마을교육나눔팀이었다. 이들은 1층에서 체험 예약자 확인을 거치고는 곧장 2층의 목재체험실로 올라갔다. 2시부터 체험이 예정돼 있었다. 팀별로 테이블 하나씩 자리를 잡고 녹색과 갈색의 앞치마를 두르고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오늘 체험의 대상인 차반(茶盤)의 재료와 망치 등이 놓여 있었다. 곧이어 강사가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설명을 시작했다. 그렇게 10여 분의 설명이 끝나고 직접 차반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접착제를 붙여야 할 부위에 사포질을 시작으로, 테이블마다 진지한 표정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툼툼툼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체험실에 울려 퍼졌다. 3시 30분을 넘어서자 한 명, 두 명씩 완성된 차반을 들어 이리저리 들여다보면서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듯 옅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서울 양을 데리고 체험에 참가한 권정임 씨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믿고 왔는데, 가족들과 함께 목공체험을 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오늘은 우리마을교육나눔을 통해 신청을 했지만,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개관한 달서목재문화관은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시하고, 교육, 목공 체험 기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1,423㎡로 1층은 종합전시실, 다목적홀, 유아 등을 위한 오감 놀이시설의 나무상상놀이터로 꾸며져 있다. 2층에는 목재체험실과 공구실, 페인터실, 테라피 체험실 등이 갖춰져 있다. 테라피 체험실은 아로마 테라피 체험실과 편백 테라피 체험실 2개가 있으며 잔잔한 음악과 함께 아로마향과 피톤치드 샤워를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 별빛 카페는 2~3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카페에 있는 메모리얼 트리는 목재, 산림, 생태, 환경 테마의 책으로 구성된 서가 및 이용객들의 사진을 전시하여 경험을 나누는 게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달서목재문화관 관계자는 “주말에는 오전과 오후 예약이 꽉 찬다”며 “특히 어린 아이들이 건강한 공간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유아 등을 동반한 부모들 외에도 조부모들도 많이 방문한다”라고 말했다.

이용방법은 개인이나 단체 모두 가능하며 사전에 예약해야만 한다. 나무상상놀이터의 경우 1시간 30분 동안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목공체험은 재료비와 체험비(2,000원)를 별도로 내야 한다. 목공체험은 초급과 중급, 고급 3종류가 있으며 시간은 2시간이다. 예약은 온라인(홈페이지: <https://www.dalseowood.kr>)이나 전화(053-667-3620)로 가능하다.

김영준

서양화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 신호등에 걸려 대기하던 중 차창 밖으로 하늘을 보니 구름의 형태가 마음에 들었다. 흔하지 않은 멋진 구름이었다.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운전해 사진을 찍을 만한 곳을 찾아 차를 세우고 다시 하늘로 시선을 돌렸을 때는 구름은 이미 모양이 바뀌어 있었다.

- 1 「하늘보기(22-25)」 290.9x181.8cm
oil on canvas 2022
- 2 「하늘보기(22-17)」 112.1x162.2cm
oil on canvas 2022



16년째 구름과 푸르른 창공 소재 「하늘보기」수도 없이 그려

1986년 대학을 졸업한 후 집이며 직장이자 작업실인 화실에서 생계를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며 작품 활동을 했다. 그러던 중 1990년이 저물어갈 무렵 교육대학원을 나온 대학동기가 교육청에 임용고시 원서를 내려 간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서류를 준비해 응시했다. '어차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작품 활동을 해야 될 형편이라면 차라리 교사가 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작품 활동을 하자'는 생각이었다. 원서를 내고 나니 시험까지는 20여 일 남아 있었다. 매일 학생들이 돌아간 밤 10시가 되면 화실 문을 닫고 새벽이나 아침까지 시험 준비를 했다. 시험은 합격했고, 1991년 봄부터 교직에 들어섰다. 그 후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처음에는 한 5년만 다니다가 그만두고 작업에 전념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가정을 책임져야 했다. 낮에는 교사 밤에는 작가의 일상이 계속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품 활동에 대한 갈증은 증폭됐지만 29년이 흐른 뒤에야 교문을 나설 수 있었다.

변치 않는 자연 담고자 「하늘보기」그려

어느 날 스케치를 위해 찾았던 곳이 개발되면서 과거의 모습은 오간 데 없었고, 빈손으로 돌아서야만 했다. 돌아오는 길에 '변치 않는 원초적 자연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순간 차창 밖으로 푸르른 창공과 구름이 보였다. 그렇게 연작 「하늘보기」가 시작됐다.



1

그로부터 구름 필력(筆歷)만 16년째다. 그동안 그린 작품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 가히 '구름의 화가'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화가에게 있어 구름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돌아온 답은 "구름은 나의 영원한 캔버스"였다. 16년째 구름을 보고 그렸으니 표현하는 방법도 변했다. 초창기 구름을 그릴 때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자상했다. 언제, 어디서 본 구름인지를 드러내려고 했다. 구름 속에 계절과 시간을 짐작할 수 있는 색깔을 표현하려고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필요 이상은 타인의 몫으로 건네고, 수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구름을 관람객의 눈높이로 가져다주기만 한다. 마치 눈앞의 정물화를 보는 듯하다. 감상함에 있어 시선 처리가 부담이 없다. 굳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보인다. 문득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저 구름이 보이는 것처럼.

물성 살리는 데 역점... 마음의 위안 주고파

구름을 표현하는 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물성'이다. 구름은 0.25g 무게의 수많은 물방울과 공기로 구성돼 있고, 책 '구름의 무게를 재는 과학자'에서는 보통의 뭉게구름(적운)은 그 무게가 500톤으로, 꼬끼리 100마리의 무게에 해당하는

다고 한다. 엄청난 무게를 가진 구름이지만 창공을 유영하듯 떠다니고,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꾼다. 화가는 이런 구름의 물성을 표현하기 위해 수십 번의 터치로 한 올 한 올 구름의 결을 빚고 음과 양을 극도로 세분화해 형태를 빚는다. 구름의 가운데는 솜털처럼 포근하고 가장자리는 미세한 물방울로 산산이 흩어질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그래서 화가의 구름을 보고 있으면 살아 있는 듯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시간이 지나면 형태가 변할 것만 같다. 지극히 한가로운 평온함을 가져다준다. 화가는 봤을 때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구름은 그리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화가는 "현대인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옥상에 올라 먼 하늘을 쳐다본다. 구름과 창공은 답답한 마음을 뚫어주고, 영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며 "「하늘보기」를 통해 위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달서아트센터 통해 밤하늘 처음 선보

최근 화가는 밤하늘을 그리기 시작했다. 8월 11일까지 진행되는 달서아트센터 개인전을 통해 처음으로 밤하늘 신작들을 선보였다. 달서아트센터 갤러리 1층에 있는 전시실을 들어서면 우측에는 낮 좌측에는 밤하늘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대형 작품들이 가득 걸려 있다. 기존의 낮하늘이 사실적인 모습에 작가의 감정이 덧칠해졌다면, 밤하늘은 어릴 적 고향 영양의 밤하늘이 추상적으로 되새김질돼 있다. 낮하늘이 작가의 주관적 감정이 개입돼 있다면, 밤하늘은 관람객 각자의 추억과 상상의 여지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낮하늘이 힐링이라면, 밤하늘은 동경이다. 낮이 현실이라면 밤은 이상이다. 화가는 "기존의 「하늘보기」와 대비되는 밤하늘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서로가 더 빛날 수 있고, 관람객들은 마음의 위안과 동경이라는 감정의 유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

<소묘>는 예술 활동을 통해 무대 위의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기 위해 만든 극단으로 창작뮤지컬과 연극, 밴드컬, 년버블 공연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 활동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극본과 연출과 제작 등 1인 다역을 소화하는 <소묘>의 백창하 대표를 만나 그동안 <소묘>와 백 대표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들어봤다.

기계공학도의 화려한 변신

백창하

아트컴퍼니 <소묘> 대표



백창하 대표의 주요 작품 이력

- 뮤지컬
『별』 작 / 연출, 『옹고집전』 극작, 『Nothing Changed』 연출, 『PLAYIST 2nd』 연출, 『꽃이 피고 비가 내리면』 연출, 『사이니 데이즈』 연출, 『오므라이스』 제작
- 연극
『술 권하는 사회』 연출, 『애자』 작 / 연출, 『PLAYIST 1st』 제작, 연극 『Secret』 연출, 『사라진 신부는 어디로 갔을까』 연출
- 음악극
『서침 - 마음으로 지은』 연출, 『옹고집전』 극작, 『애자』 연출, 밴드컬 『우주』 제작

극단 이름 <소묘>는 어떤 의미고, 또 언제 창립했나?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다. 동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작품으로 무대에서 그려보자는 취지로 지었다. 2015년에 주변에 같이 활동하는 동료들 몇 명과 함께 창립했다.

30대 초반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부터 연극이나 뮤지컬을 시작했고,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나?

1990년생으로 올해 32살이다. 학생 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군대 전역하고 23살 때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을까, 뮤지컬을 하면 노래도 부르겠지'라는 생각에 친구들과 재미삼아 오디션에 참가했고, 뮤지컬 전문 극단의 워크숍 단원으로 시작했다. 그 이후 프리랜서로 연극과 뮤지컬 등 배우로 활동하게 됐고, 지금은 극본을 쓰고, 연출을 주로 하고 있다.

음악이나 연기를 전공했나?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완전 비 전공자다.

2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극단을 창단했다. 보통 그 나이에는 극단이나 기획사 등에 소속돼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직접 극단을 창단한 계기는?

2014년 즈음, 덤프(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참가작 공연과 동성로에서 로맨틱 코미디 공연을 매일 했었다. 장기 공연을 계속하다 보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게 됐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 부모님께서는 전공을 살려 취직하기를 바라셨고, 부모님의 바람과 내 개인적인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했다. 무작정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취업준비를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글을 쓰면 누군가가 읽어줘야 하는데, 할 수 없이 같이 일했던 배우나 연출자, 기획자 등 선배들에게 리뷰를 부탁했고, 그런 만남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극단을 창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티별) 참가작 공연과 동성로에서 로맨틱 코미디 공연을 매일 했었다. 장기 공연을 계속하다 보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게 됐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 부모님께서는 전공을 살려 취직하기를 바라셨고, 부모님의 바람과 내 개인적인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했다. 무작정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취업준비를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글을 쓰면 누군가가 읽어줘야 하는데, 할 수 없이 같이 일했던 배우나 연출자, 기획자 등 선배들에게 리뷰를 부탁했고, 그런 만남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극단을 창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글을 쓴다는 의미는 극본을 쓴다는 의미인데, 비전공자로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어떻게 실력을 키울 수 있었나? 그리고 처녀작 공연은 무엇이며, 언제 무대에 올랐나?

극본이나 대본과 관련된 도서를 수십 권 읽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연극 대본이나 시나리오 등을 보면서 혼자 글을 썼다. 쓴 글은 주변의 선배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했

고, 수정하면서 완성도를 높였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쓸수록 주변의 반응도 좋아졌다. 극본을 써서 맨 처음 올린 작품은 『애자』다. 김광석 거리의 일련의 사건에 영감을 얻어 젠트리피케이션을 주제로 다룬 내용으로 2017년 처음 무대에 올랐다.

지금까지 몇 작품 정도 써서 무대에 올렸고, 그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해마다 1~2개씩 10여 개 이상 무대에 올린 것 같다. 역시 처녀작이었던 『애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애자』가 처음 무대에 올려진 날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그때의 감정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관객들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내 모든 세포가 파도처럼 출렁거렸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해냈구나'라는 안도감과 성취감에 들떠있었던 것 같다.

뮤지컬은 연기를 위한 대본 외에도 노래를 위한 가사도 필요한데 가사도 직접 쓰나?

직접 쓴다. 내가 가사를 쓰면 같이 작업하는 멤버들 중에 작곡자가 곡을 붙인다.

어떤 작품을 하고 싶고,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현재를 사는 관객들이 공감하는 작품을 하고 싶다. 고전도 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새롭게 각색했을 때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무대에 올렸던 연극 『술 권하는 사회』 같은 경우,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단면을 그리고 있지만 연극 『술 권하는 사회』는 현시대 청년과 장년들이 마주한 사회 문제와 개인의 갈등을 주제로 다루었기에 관객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교육청이나 구청 등과 연계해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뮤지컬이나 연극 등을 배우고 직접 작품을 만들어 공연까지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또 다문화 가정(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지만) 어린이와 일반가정의 어린이가 함께 어우러져 뮤지컬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끝으로, 연극이나 뮤지컬 배우, 연출자 등 이 분야로 진출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요즘은 노래도 잘하고 잘생긴 배우들이 너무 많다. 그런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배우라야 연기에 진정성이 묻어난다고 생각한다. 수십, 수백 년 전 작품의 시대적 배경, 인물의 특성 등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연기도 빛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해보고 판단하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작은 연기의 경험이 축적돼 큰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윤희

주임

그동안 작은도서관을 운영했던 이옥례 주임이 지난 6월 정년을 맞아 퇴임했다. 이 주임은 달서문화재단 설립 후 1호 정년퇴임자로, 2005년 8월 탁아실 교사로 처음 재단과 인연을 맺었다. 퇴임을 맞아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첨단문화회관 시절 보육교사로 시작

2005년 8월 첨단문화회관(달서아트센터 옛 명칭)탁아실 보육교사로 처음 근무를 시작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수영 등 아카데미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이나 공연을 관람하러 오는 관객들이 아이를 동반해 오면 강좌나 공연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탁아실이 있었다. 보통 0~5세의 어린 유아들이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와 함께 수강생들의 연령대도 높아지면서 아이를 동반한 수강생은 갈수록 줄었고, 탁아실도 덩달아 유명무실해졌다. 결국 2016년 2월, 탁아실이 문을 닫았다. 그 무렵 첨단문화회관의 운영 주체도 구청에서 문화재단으로 옮겨져 있었다.

한가해 보여 부러움을 사지만 책 한 권 정독 못 해봐

2016년 3월 3층의 작은도서관으로 처음 출근했다. 아이들을 좋아해 20대 초반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들하고만 30년가량 같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도서관 일을 하게 됐다. 단지 사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를 포함해 도서관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일이었다. 처음 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꼼꼼하게 업무를 파악해 나갔다. 시간이 지나자 일은 익숙해졌고, 이용객들의 '부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다. 또 몇몇은 대놓고 '좋은 직장에 근무하시네요'라고 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읽고 싶은 책 읽으면서 월급 받으니 천하의 보직'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탁아실에 근무할 때는 3층에 올라와 자주 책을 빌려 읽기도 했었지만 정작 도서관에 근무하니 책 한 권 정독하기가 어려웠다. 매일 점심 전까지는 자리에 앉을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주민들과의 대어, 반납 업무, 도서관들과의 상호대차 업무를 하고 나면 오전은 후딱 지나간다. 또 도서대여 외에 프린터와 컴퓨터 등 사무용기와 관련된 이용객들의 요구사항도 여러 가지다. 특히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곳이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전화가 와서 못 받으면 바로 재단사 무실로 전화가 간다. 그리고는 '오늘 도서관 문 닫았느냐고 확인한다.

요구사항 많은 고객 더 친절하게 대해 불만사항 원천 차단

아이들을 좋아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주로 해왔지만 도서관도 또 다른 재미가 있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이 주임이 오기 전 작은도서관에는 젊은 기간제 직원들이 근무했었다. 그들은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이용객의 사정은 관심 없고, 오로지 규칙만 강요했다. 그러다 보니 불만을 가진 이용객들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이 주임은 달랐다. 정해진 규칙을 최대한 지키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전후좌우를 살핀 다음 자신이 책임지고 예외를 인정해 주기도 했다. 또 전임자로부터 전해들은 요주의 인물(요구사항이 많은 고객)에게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했다. 당연히 이용객들과의 관계는 좋았고, 6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불만사항 접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도서관 책은 '내 책'이 아니라, '예술품' 보듯 봐야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중에도 간혹 도서관 책을 자기 책처럼 보는 사람이 있다. 연필이나 볼펜 등으로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으로 칠하기도 한다. 연필로 그은 것은 지우개로 지우면 되지만, 볼펜이나 형광펜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대여목록을 확인하고 조심스레 용의자(?) 확인하고 물어보지만 대부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반납된 도서를 일일이 모든 페이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확하게 누가

그랬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 낙서 수준은 확인하기도 어렵고, 책의 손상정도가 작아 새 책으로 구입해 주라고 요구하지 않지만 음식물이나 커피 등 음료로 책을 손상했을 경우는 범인(?)을 찾아 새 책으로 보상받은 적도 몇 번 있다.

이 주임은 "책을 읽다가 중요한 문장이 있으면 눈과 머릿속으로 밑줄을 긋되, 책에다 밑줄이나 색칠을 해 다음에 읽는 독자가 인상을 찌푸리거나 선입견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도서관의 책은 공공의 재산이고, 여러 사람이 보기 때문에 예술품 대하듯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이들 좋아숲 해설사로 새롭게 인생 3막 준비

공교롭게도 탁아실이 문을 닫게 돼 도서관으로 옮겼고, 도서관이 문을 닫을 무렵 정년을 맞았다. 정년을 맞은 것은 시원스럽지만 도서관이 없어지는 것은 못내 아쉽다. 작은도서관이었지만 그래도 그 곳을 사랑방 드나들 듯 자주 이용하던 주민들을 생각하니 더욱 그러하다. 아트센터 내 작은도서관은 6월 말까지 운영됐고, 독도메타버스로 새로 문을 열 계획이다.

도서관이 새롭게 변모하듯이 이 주임도 새로운 인생 3막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협회에서 진행하는 숲 해설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식물공부에 여념이 없다.

이 주임은 "아이들에게 꽃과 나무 등을 해설해주는 숲 해설가가 개인적으로 잘 맞겠다는 생각에 도전했다"며 "도서관에 있을 때는 책을 못 읽었는데, 나오니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게 된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드라마 속 대구 명소 계명한학촌 啓明韓學村

Keimyung Hanhak-chon

노비였던 부모는 주인인 김판서에 의해 처참하게 맞아 죽었다. 부모의 주검을 본 후 쉬지 않고 뛰고 또 뛰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벗어나고 싶었다. 기왕이면 조선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고 싶었다. 얼마 후 파란 눈과 금발머리를 한 서양도깨비의 배가 보였다. 저 배가 어디로 갈지 알 수는 없었지만 몰래 숨어 들어갔다. 한참 후 배가 다다른 곳은 미국이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동양 어린아이가 살아남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었다. 갖은 고생을 겪고 미국인 유진 초이(이병헌)가 된 그는 해병대 장교가 돼 조선으로 돌아온다. 다시 돌아왔을 때 조선은 주변 열강들의 틈새에 끼어 국권은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돼 있었다.

한편, 덕망 높은 양반가의 딸 고애신(김태리)은 갓난아기 때 의병활동을 하던 부모님이 동료의 배신으로 살해당한 이후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 남몰래 사격술을 연마해 밤이슬을 맞으면서 친일파 인물 제거에 나서는 등 의병활동에 투신하는데……. 미스터 션샤인은 2018년 7월에서 9월까지 방영된 드라마로, 1900년 초 대한제국시대 의병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경도 덩달아 주목을 받았다.

계명대, 개교 50주년 기념해 계명한학촌 건립

지난 2004년 계명대학교는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성서캠퍼스 내에 계명한학촌을 건립했다. 한학촌은 교육공간으로 이용되는 계명서당(啓明書堂)과 주거공간으로 이용되는 계정헌(溪亭軒), 정원(庭園)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계명서당이 135평, 계정헌 104평, 기타시설이 20평으로 건축물의 총 규모는 259평이나 된다. 주변에는 100미터에 이르는 계곡물이 한학촌의 연못으로 흐르고, 소나무 숲길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여주인공 고애신은 서양인이 운영하는 목화학당을 찾아가 영어를 배운다. 고애신의 정혼자 김희성(변요한)은 고애신을 만나기 위해 여자들만 있는 목화학당을 찾아가 경천당(敬天堂) 현판(懸板)이 보이는 돌계단 아래에서 둘은 마주한다. 드라마 속에서 고애신이 영어를 배우고, 김희성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계명서당이다.

도산서원, 양진당 등 본떠 전통적인 한옥 재현

계명서당은 달성군 구지면의 도동서원(道東書院)과 안동의 도산서원(陶山書院)과 같은 유명서원의 형태를 본보기로 하여 건립했다. 도동서원은 조선시대 한훤당 김굉필의 학덕을 기리기 위한 곳이며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

이다. 훈장이 유생들을 가르치는 주 교육공간인 경천당(敬天堂)을 비롯해 서당의 출입구이며 풍류와 휴식을 즐기는 누각인 청송루(靑松樓), 차를 마시는 전통 다실(茶室)인 문다헌(聞茶軒), 유생들이 생활하고, 자습하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구인재(求仁齋), 집의재(集義齋), 훈장이 평소 생활하는 공간인 온지실(溫知室)로 구성되어 있다. 경천당 뒤뜰에는 바르고 굳은 절개를 상징하는 오죽(烏竹) 숲이 있다. 숲을 지나가면 오죽을 스치며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발걸음을 붙들고 잠시 쉬어가라 한다.

계명서당을 나와서 서쪽으로 선비교를 지나면 전통 양반가옥 계정헌이 모자형으로 자리하고 있다. 드라마에서 고애신의 집으로 등장하는 곳이다. 계정헌은 안동 하회마을의 양진당(養眞堂)과 경주 양동마을의 향단(香壇)을 본 떠 건립했다. 양진당은 서애 류성룡의 형인 겸암 류운룡의 종택이다. 향단은 회재 이언적이 경상감사 재직 시절 지은 집이다. 주로 여성들의 생활공간으로 사용되는 안채와 집안 어른이 상주하면서 손님을 접대하고, 어린 자녀를 교육하는 공간인 사랑채와 머슴의 공간, 마굿간, 창고 등이 있는 행랑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양은 입구(口)자 양반가옥의 평면적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다. 계정헌은 대구의 입지적인 기업인으로서 계명한학촌 건축에 상당한 사재(私財)를 희사한 계정 우종목 회장의 아호를 따서 '계정헌'이라 명명했다. 계정 우종목 회장은 1923년 대구 출신으로 대구에서 고려예식장 등 여러 기업을 경영하면서 지역의 공익사회사업에 특별히 공헌한 공로로 1994년 국민훈장을 수훈한 바 있다.

각국 정상들이 방문한 흔적 그대로 남아

계명서당과 계정헌 사이에는 100m에 이르는 계곡이 있고 이 계곡을 따라 아담스채플로 올라가는 돌계단 길이 나온다. 가운길이다. 가운길 양옆에는 솔밭이 있고, 봄여름가을 동안 솔밭 사이로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해 계명인들이 즐겨 찾는 사색의 길로 알려져 있다. 계정헌 앞마당 앞에는 계명서당과 계정헌 사이로 계곡물이 흘러 들어와 잠시 쉬어가는 조그마한 연못이 있고, 연못 서편에는 '서운정(瑞雲亭)'이 탁족(濯足)하듯 두 기둥을 연못에 담근 채 걸터앉아 있다. 서운(瑞雲)은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이중우(李重雨) 명예교수의 아호로 2004년 계명한학촌 건축 당시 이중우 교수가 건축설계를 맡은 것을 기념해 서운정이라 지

었다. 정원은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 정원 개념에 입각하여 각 조경요소의 배치와 형태를 그대로 살렸다. 서운정 옆 연못에는 특별한 표지석이 있다. 지난 2015년 4월 12일부터 대구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에 참석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각국의 정상 및 귀빈들이 찍은 기념사진이 돌에 새겨져 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야노쉬 아데르 헝가리대통령, 압델리라 벤키란 모로코 총리, 안 알리야스 유엔사무부총장, 호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각국의 정상들과 귀빈들은 계명한학촌을 방문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한국의 전통한옥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서로운 솔향이 캠퍼스 전체로 번져 나가

계명한학촌으로 들어가는 문은 모두 3개다. 동산도서관과 의양관 사이의 남쪽 정문은 주일문(主一門), 동쪽 아담스채플 가는 길에서 들어오는 동문은 계명서당과 연결되는 학이문(學而門), 서쪽 계정헌으로 들어오는 서문은 백호문(白虎門)이라 한다. 백호문은 동양의 동서남북을 지키는 상상 속의 4가지 동물, 즉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 남주작(南朱雀), 북현무(北玄武)에서 유래한 것이다.

계명한학촌의 소나무 숲은 성서캠퍼스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신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풍기는 솔향은 성서캠퍼스 전체로 퍼져나갈 정도로 그 향이 짙다. 솔숲 서쪽에는 소나무만이 아니라 소나무과의 곰솔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곰솔은 나무의 껍질이 붙어서 붙인 이름이다. 곰솔은 바닷가에서도 잘 살기 때문에 해송(海松)이라 부른다. 곰솔은 소나무처럼 잎이 한 묶음에 2개씩 달리지만 길이가 길고 역세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표정, 발 닿는 곳마다 포토존

한학촌은 계명서당과 계정헌이 각각 숲에 둘러싸여 있어 계절이 바뀔 때마다 표정이 다르다.

노랗고 붉은 꽃들이 만개한 봄, 주변이 온통 녹색 물감을 뿌려놓은 듯 녹음으로 가득한 여름, 붉은 단풍과 누렇게 익어가는 잎들이 빛을 한껏 머금은 가을, 흰 눈이 사위를 감싼 고즈넉한 겨울에는 단아하게 한복을 차려 입은 고애신이 함안택과 함께 대문을 열고 나올 듯하다. 또 같은 날이라도 시간에 따라 빛과 그림자가 연주하듯 전혀 다른 풍경을 자아낸다. 때문에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인생컷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다.



계명서당 청송루



계명한학촌 연못

from Dalseo

.....

문화 + 예술 = 삶,

일상

문화로 소통하고
예술로 공감하는
삶, 일상이 되는 곳 달서문화재단



파격의 연주, 유자 왕 첫 내한 피아노 리사이틀

- 6월 1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이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유자 왕 (Yuja Wang, 王羽佳)의 리사이틀이 지난 6월 15일(수)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달서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DSAC 시그니처 시리즈로 해마다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를 초청해 명품 공연을 선보였다.

‘The One and Only’ 독보적인 피아니스트, 유자 왕

“유자 왕의 수월한 기술적인 해석, 색채의 범위 그리고 순수한 힘의 조화는 항상 놀랍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점 더 깊이 있는 음악성을 드러내며, 즉각적이면서도 매력적으로 각 작곡가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이는다.” - 파이낸셜 타임즈

20세기에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유자 왕이 있다. 유자 왕은 2007년 컨디션 난조로 무대에 오르지 못한 건반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를 대신해 샤를 뒤투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에 오른 후 단번에 스타덤에 올랐다. 오늘날 전설의 아르헤리치를 이을 여류 피아니스트로 언급되고 있다. 유럽 아티스트들이 대부분인 클래식 시장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아시안 피아니스트였던 그녀는 그 무대 이후 2년 만에 도이치 그라모폰과 독점 계약을 맺었다.

이후 모든 음반과 무대에서 평론가들의 극찬을 이끌어내며 클라우디오 아바도, 다니엘 바렌보임, 발레기 게르기예프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에게 협연자로서, 또 저명한 공연장의 솔리스트로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 얼마나 화려한 테크닉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새로운 음악을 선사할지 모든 면에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유자 왕의 내한 리사이틀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성사되었다.

달서아트센터에서 가장 먼저 만나본 유자 왕의 피아노

유자 왕은 보수적인 클래식 공연계에서 파워풀하고 화려한 자신만의 연주력으로 당시 팽배했던 아시안 연주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객들을 전율케 했다. 괴물 같은 테크닉과 깊이 있는 해석, 관객들의 혼을 빼놓는 무대 매너까지 모두 갖춘 유자 왕은 그 어떤 피아니스트들도 대신할 수 없는 끝없는 매력으로 전 세계 모든 대륙을 아우르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2019년 LA필하모닉 100주년 기념 페스티벌에서 구스타보 두다멜과 함께 내한해 한국 관객들과 가진 짧은 만남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그녀가 달서아트센터로 시작으로 첫 내한 공연을 선보였다.

파격의 연주로 기립박수 받은 유자 왕의 프로그램

유자 왕은 지난 4월 뉴욕의 카네기홀 공연에서 열린 리사이틀에서도 연주할 프로그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연주곡목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녀는 이번 내한공연에서도 파격적인 프로그램 공개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겼다. 공연 시작 전 안내방송을 통해 프로그램 변경 사실을 알린 것이다.

“본 공연의 프로그램이 연주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작곡가, 시대, 스타일 등 정해진 틀 안에서 감상하기보다는 음악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즐겨 주셨으면 하는 연주자의 의견에 따라 변경된 프로그램은 공연 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안내 방송 후 솔렁이는 객석을 뒤로하고 입장한 유자 왕은 특유의 90도 폴더인사로 관객의 이목을 단번에 집중시켰다.



잠시 후 건반 앞에 앉은 그녀가 첫 연주로 들려준 곡은 슈베르트 가곡집 중 리스트가 편곡한 '사랑의 소식'이었다. 이어서 안식처, 마왕을 선보였는데 아름다운 선율과 거침없는 강렬한 연주는 청룡홀을 가득 채운 관객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뒤이어 쇤베르크의 피아노 모음곡 작품번호 25, 슈베르트의 헝가리안 멜로디 B단조 D.817, 리게티의 에튀드 6번 '바르샤바의 가을'과 13번 '악마의 계단'을 들려준 다음 1부를 마무리했다. 예측불허의 선곡은 청중들의 궁금증을 유발했고, 곧 있을 2부 연주를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다. 스크랴빈의 피아노 소나타 3번으로 시작해 스킨클라트의 소나타 G단조, 장 필리프 라모의 '아만인들'을 연주했고, 알베니스의 이베리아 모음곡 제3권 3번 '라파비에스'를 마지막으로 본 공연을 마쳤다. 2부에서도 거침없이 펼쳐지는 유자 왕 특유의 에너지와 테크닉을 선보였고, 관객들은 환호를 보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는 앙코르에서도 이어졌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으로 시작해 마르케스의 '단조 2번', 바흐의 '바디느리', 리스트의 '샘가에서', 카푸스틴의 '토카티나', 글래스의 '에튀드 6번',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7번 3악장'까지 무려 7곡이나 연주했고, 그녀의 열정 넘치는 연주에 빠져든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오늘을 즐기는 그녀의 모습이 새겨진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기립박수로 막을 내렸다. 성황리에 마친 이번 공연은 유자 왕이 연주 외적인 파격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페스티벌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초청받고 환영받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자리였다. 국내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유자 왕의 다음 내한 공연이 더욱 기대된다.

달서아트센터 자체 제작 뮤지컬 「월곡」 제16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서막을 열다

- 총 제작기간 3년, 달서구 대표 레퍼토리 뮤지컬 「월곡」

- 16회 DIMF 특별공연작 선정... 6월 23 ~ 25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서 공연

(재)달서문화재단(이사장 이태훈) 달서아트센터가 달서구만의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 레퍼토리 개발을 위해 제작한 뮤지컬 「월곡」이 제16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특별공연작으로 선정돼,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화려하게 서막을 열었다. 「월곡」은 임진왜란 당시 현재 달서구 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이자 상인동에 위치한 '월곡역사공원'의 주인공인 '월곡 우배선'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로, 달서아트센터가 3년에 걸쳐 제작해 지난해 처음 선보인 작품이다.

초연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2022 뮤지컬 「월곡」

뮤지컬 「월곡」은 2020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리딩극 형태로 첫선을 보였고, 지난해 완성된 작품으로 공개된 초연은 대중의 큰 호평을 받으며 지역 대표 콘텐츠로서 그 발전 가능성을 증명했다. 올해는 지난해 초연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수정·보완해서 음악과 스토리 라인, 무대 세트, 안무 등을 업그레이드해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여 관객 및 공연 전문가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또 작년에 이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문예회

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기획·제작 프로그램에 선정,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으며 상품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 올해는 특히 제16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특별공연 초청작으로 참여해 대구시민들에게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작품의 주인공인 '월곡 우배선 장군'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당시 대구 달서구 일대를 근거지로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워 선무 원종공신에 책록된 인물이다. 뮤지컬 「월곡」은 우배선이 남긴 「의병군공책」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우배선 장군의 업적을 조명하고 의병들의 애국정신과 애환을 담은 휴먼드라마로 만들어졌다. 역사적 인물과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혁이, 월이 등 가상 인물을 통해 극적 요소를 더했다. 흥미롭고 빠른 스토리 전개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 귀를 사로잡는 넘버들을 통해 지역의 위인 우배선 장군의 이야기를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성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서는 극중 배경인 대구 비슬산의 암괴들을 무대 세트에 재현했으며, 강렬한 전투신과 역동적인 안무가 더해져 뮤지컬 「월곡」만의 특별한 매력을 보였다.

대구를 대표하는 창작진과 출연진, 「메이드 인 대구·달서」 작품

달서구를 대표하는 콘텐츠인 만큼 창작 및 출연진은 주연 배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구 예술인들로 구성했다. 제작 총괄은 달서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이 맡았고, 대구 대표 안무가인 장혜린이 연출자로 데뷔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극본은 손수민, 작곡·음악감독에는 진주백, 무대디자인 손지희, 의상디자인 이수진 등 각 분야에서 대구 최고의 뮤지컬 제작진들이 참여했다. 출연진들도 화려하다. 주인공 우배선 역에는 뮤지컬 「박정희」, 「대왕문무」, 「이순신의 바다」 등에서 주역으로 출연하며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인 뮤지컬 배우 정도원이 맡았고, 뮤지컬 「반딧불」, 「비개하늘」, 「가얏고」 등에서 주역으로 출연한 박지훈이 일본장수 카게요시 역을, 뮤지컬 「북성로 이층집」, 연극 「십이야」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채이 배우가 월이 역을 맡았다. 혁이 역에는 뮤지컬 「기적소리」, 「생텍쥐페리」, 「마이선」 등에 출연한 박명선이 초연에 이어 올해도 열연을 펼쳤으며 이민주(만애 역), 정아름(필공 역), 최용욱(곽재우 역), 이영찬(성필 역), 윤도현(사매 역), 최봉건(용팔 역), 강영은(맹씨 부인 역), 전석형(의병 1역) 등 대구를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들이 「월곡」을 함께 빛냈다. 달서아트센터 대표 레퍼토리 뮤지컬 「월곡」은 앞으로도 대구의 우수한 뮤지컬 제작 역량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지역 대표 뮤지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진할 예정이다.

월곡역사공원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월곡역사공원'에는 대한민국 보물 1334호로 지정되어 임진왜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는 『성주화원 의병군공책』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 군공책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의 전공 보고서로 우배선의 의병 활동에 대한 구체적 전개과정, 전투 기술적인 양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놉시스

역병과 기근으로 부모를 잃은 월이와 그런 그녀를 친동생처럼 여기는 혁이는 주인의 악독한 횡포와 비참한 노비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도망친다. 이 상황을 지켜본 우배선은 이들을 가없이 여겨 집으로 데리고 온다. 정 많은 식구와 함께 생활하며 평온한 날들을 지내고 있는 월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배선을 동경하게 되고, 혁이는 우배선을 향한 월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한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내세워 조선을 침략하고 스물네 살의 청년 우배선은 우리 고향, 우리 가족을 지켜내고자 50여 명의 의병들을 꾸려 1592년 4월, 벚꽃이 만개한 비슬산에서 '왜군토벌'이라는 결의를 다지게 되고, 목숨을 건 의병 활동을 펼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 장수 카게요시 유키나가는 우배선이 가장 아끼는 동료들을 포섭하려 하고 혁이는 갈등하게 되는데...



아카데미 상반기 프로그램

성인 대상 예술감상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어른들의 공연감상 놀이터 달서」 1기

달서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역주민의 생애 전반에 이르는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및 성인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른들의 공연감상 놀이터 달서」는 지역문화시설·자원 기반의 공연과 연계하여 지역예술가와 공연의 특징, 배경, 음악, 연기, 무대, 오브제 등 감상포인트를 알아보고 일부 실습해보는 내용으로 총 2개 기수로 나눠 기수별로 각각 6회 차로 진행하고 있다. 1기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달서구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은 창작뮤지컬 「월곡」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다.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인 사람들, 기분 좋은 시작!

나이, 성별, 사는 곳도 다른 20명의 성인이 뮤지컬을 좋아한다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달서아트센터에 모였다.

첫째 날, 어색한 분위기에 조마조마했던 것도 잠시!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고 조별로 나누어 뮤지컬 월곡의 주인공물 우배선의 이야기를 낭독하고 주요 사건을 정리하여 그 장면을 몸으로 표현하는 과정까지... 너무나 즐겁고 설레는 첫 출발이었다.



뮤지컬, 아는 만큼 보인다!

뮤지컬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지만 뮤지컬을 관람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 궁금했던 참여자들은 매주



목요일 달서아트센터 5강의실에 모여 총 6회에 걸쳐 뮤지컬 관련 지식과 관람포인트를 알아갔다. 6회 동안 뮤지컬의 역사와 구성요소를 비롯해 음악·무대·조명에 따라 달라지는 뮤지컬의 종류와 조명에 따른 극적효과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다. 이론적 지식을 쌓은 후에는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기, 뮤지컬 넘버 부르기, 뮤지컬 무대디자이너가 되어 무대를 그려보기 등 그날 배운 것을 직접 체험하며 몸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어른들의 놀이터, 「공연감상 놀이터 달서」

어른들에게도 쉴 수 있는 순간이 필요하며, 그 순간이 문화예술을 통해 웃고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른들의 공연감상 놀이터 달서」를 기획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을 즐기는 방법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로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른들의 공연감상 놀이터 달서」는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움직임으로 읽어주는 햄릿」과 연계하여 8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6주간 2기를 운영한다.



「예술인문특강」

달서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여름학기 전문가의 시선과 함께하는 고품격 예술 감상



「서희주의 미술관 산책 전시로 만나는 예술작품」

「마우리츠하위스 개관 200주년 특별전」과 「헤이그 시립미술관 몬드리안 탄생 150주년 특별전」 등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주요 전시를 함께 감상했다. 특히 「달서아트센터 김윤중 개인전」도 감상하며 작품에 대한 생생한 해설을 들을 수 있었다.



「성영현의 아트투어 클래식과 현대예술」

「푸치니 베스트 컬렉션 : Encore」 공연 프리뷰 특강으로 푸치니 오페라의 주요 장면과 아리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예술가의 자서전 형식의 구성요소들을 배우고 공연을 직접 관람하며 풍부한 예술 감상의 기회가 되었다.



「테너 최덕술과 함께하는 오페라 1열 감상」

「사랑을 테마로 테너 최덕술의 해설과 함께 「라 트라비아타 (La Traviata)」와 「사랑의 묘약(L'elisir d'amor)」을 감상했다. 무대 뒤 비하인드 스토리와 배우들의 섬세한 디테일 연기에 대한 해설도 더해져 색다른 오페라 감상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영화평론가 김중기의 영화 속 명장면을 찾아서」

무성영화 시절의 영화제작 방법과 주요 작품을 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갱스터, 액션 그리고 공포영화의 거장인 히치콕 영화 명장면과 함께하며 무더운 여름을 싱그럽게 보내는 시간이었다.

달서문화재단 상반기 축제



「2022 달서 신년음악회」

2022 임인년(壬寅年)의 희망찬 출발을 응원하고자 (재)달서문화재단은 「달서 신년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대구 시립국악단의 연주에 국악관현악, 민요, 소리, 모듬북, 성악 등이 더해져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했다. 한국인 바리톤 최초로 도이체오퍼 극장 솔리스트를 지낸 성악가 이동환이 가곡 '마중'과 '거문고 뱃노래'를 들려주었다. 뒤 이어 인기 국악인 오정해와 유태평양이 '너영나영', '목포의 눈물', '홀로 아리랑' 등을 들려주며 시민들에게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제공했다. 이 날 공연은 전석 무료로 제공됐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해 공연장 밖의 시민들도 온라인으로 음악회를 함께 즐겼다.



「2022 장미꽃 필 무렵」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한 2022년 봄, 달서구 이곡장미공원에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장미꽃 필(Feel) 무렵」이 개최되었다. 온라인·비대면 콘텐츠가 주를 이루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에는 '일상에 피운 장미'를 주제로 모든 프로그램이 오프라인·대면 콘텐츠로 전환되었다. '블루밍 로즈' 포토존, 로즈 버블버블(버블쇼), 로즈 스케치월, 로즈 포엠(시화전), 로즈 그라운드 뮤직(BGM 연주) 등을 통해 장미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축제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로즈 그라운드 뮤직(BGM 연주)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플루트, 첼로 등의 라이브 연주를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역

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켰다. 완연히 일상으로 돌아갈 내년 봄을 상상하며 시민이 바라는 2023년 「장미꽃 필 무렵」에 대한 의견을 로즈 스케치월을 통해 조사하였다.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2023년에는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온전히 봄을 즐길 수 있는 「장미꽃 필 무렵」이 찾아올 예정이다.

달서생활문화센터 상반기 프로그램



생활문화 프로그램 「바실마실」

동아리(단체) 대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달서생활문화센터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22년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어 혼자서도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데이 클래스(One day class) 수업들이 개설돼 많은 시민들이 생활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마련된 첫 프로그램 「바실마실」(바늘과 실로 마실에서 소통해요)은 업사이클링을 테마로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를 위한 「반려동물 용품 만들기」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리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힐링 프랑스자수」로 나눠 운영되었다. 입지 않는 청바지와 셔츠를 활용하여 애견 노즈워크, 옷 등을 만드는 「반려동물 용품 만들기」 수업은 재봉틀을

사용하는 법도 함께 배울 수 있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또 「힐링 프랑스자수」 수업은 수강생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예코백, 양말 등을 배운 프랑스자수를 활용해 리폼하는 등 수업으로 배운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손끝으로 담는 달서」

2021년 달서생활문화센터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손끝으로 담는 달서」로 만들었다. 디카시(디지털카메라 사진+시)와 캘리그래피, 아트북 만들기를 학습하여 일상을 기록하는 나만의 책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로 구성되었다. 달서구 명소를 선정하고, 그곳의 모습을 사진과 시로 남기는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참여자 모두가 달서구 특색이 묻어나는 콘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카시를 서체로 표현하기 위해서 캘리그래피를 배우고, 서체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 부채, 방향제를 꾸미면서 개성이 드러나는 나만의 생활용품만들어 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디카시와 캘리그래피로 꾸민 내지와 자수로 꾸민 외지를 손으로 엮어 만드는 아트북은 프로그램 과정이 끝나더라도 일상으로 돌아간 참여자들이 계속 채워나갈 예정이다. 1기 운영은 7월 19일로 종료됐지만 9월 13일부터 2기 운영이 시작될 계획이다. 2기는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본 과정의 모든 참여자들의 디카시를 모은 시화전이 달서아트센터 1층 갤러리라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달서가족문화센터 상반기 프로그램



달서가족문화센터 봄학기 가족친화 프로그램

「아이랑 정원 콘서트」

달서가족문화센터는 지난 봄학기(3 ~ 5월) '바람이 분다. 악기를 분다'를 주제로 「아이랑 정원 콘서트」를 개최했다. 4월과 5월 두 차례 열린 공연은 부부앙상블로 연주를 구성하여 '가족의 의미'를 돋보이고자 했다. 4월 11일에는 오카리나 김준우, 바이올린 황영심이 출연하여 바흐, 모차르트 곡 외에 우리 가곡과 영화 OST 주제곡을 연주했다. 또 이들 부부의 아들이 특별 출연해 온전한 가족콘서트로서 의미를 더했다. 5월 9일에는 클라리넷 현재호, 바이올린 최은희가 출연했다. 애니메이션 영화 OST 및 드라마 주제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특히 '바람이 분다. 악기를 분다'의 주제에 걸맞게 두 공연 모두 야외에서 선선한 바람과 함께 악기선율이 어우러져 감미로운 하모니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랑 정원 콘서트」는 달서가족문화센터의 가족친화 대표 프로그램으로 매년 4월과 5월, 9월, 10월에 개최하며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엄마'이면서 '아내'인 여성을 위한 시간으로, 자녀와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사 및 육아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고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자 기획됐다. 또 음악을 매개로 아이와 부모간의 소통과 정서적 교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목적이다.

달서가족문화센터 봄학기 문화강좌:

남자의 자격, 남성 대상 강좌

여성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주저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달서가족문화센터는 올해 새로이 남성들만을 위한 「맨즈 필라테스」를 개설해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에 한해서만 운영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남성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지난 봄학기에는 조기 정원마감이 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미니볼, 폼롤러, 씨클링 등 소도구를 활용하여 코어강화 및 척추근막 이완, 유연성 증대 등을 통하여 체력을 강화하는 등 중장년 남성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요리 배우는 남자는 남성들의 가사 참여 확대를 위한 취미 요리」로 요리 경험이 없지만 요리에 관심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개설했다. 올해는 3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4주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요리전문가로부터 기본 반찬부터 일품요리까지 다양한 레시피를 통해 '요리하는 남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봄학기 커리큘럼은 닭볶음탕, 김치찌개, 통두부구이, 메밀소바였으며, 앞으로도 남성들의 특성이나 입맛에 맞는 메뉴로 구성해 관심과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신달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반기 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

여성들의 행복한 내 일(Job)을 위한 동행, 직업 전문가로의 첫 발걸음!

신달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구인 수요가 높은 직종에 대한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직종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직업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4일 「실버맞춤돌봄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한식조리 전문가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회계·세무 전문사무원 양성과정」, 「현장맞춤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스마트 스토어 정복! 창업 실무과정」 등 총 5개의 전문성 직업훈련과정을 성황리에 완료하였다. 직업의 전문성을 기반한 실무 교육 및 직장에서의 직업 소양 심화 교육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한 직무의 전문가로 활동할 준비가 되었다. 각 직업교육 양성과정을 통해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위축된 고용시장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전문가로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 본다.



OSAC 시리즈

국내의 최정상급 아티스트, 정제된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는 달서아트센터의 명품 공연

「레이 첸 & 선우예권 듀오 리사이틀」

21세기를 선도하는 두 클래식 스타의 만남

2009년 퀸 엘리자베스 우승자 레이 첸과 한국인 최초로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을 차지한 선우예권의 화려한 만남

- 일시 : 2022. 9. 2.(금) 19:3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OSAC 아트 페스티벌

순수예술에서 대중음악까지, 장르별 전문 예술 축제

「제3회 달서청년연극제」

청년 연극인들을 위한 창작 연극 무대

지역 연극계의 미래가 될 젊은 연극인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침체된 순수 연극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일시 : 2022. 9. 17.(토) ~ 24.(토)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와룡홀
- 티켓 : 10,000원

「2022 피아노 위크」

피아니스트 이미연의 전문 피아노 음악 축제

현재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피아니스트들이 들려주는 주요 클래식 작곡가들의 대표곡

- 일시 : 2022. 10. 18.(화) ~ 22.(토)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 20,000원

「레몬 뮤직 페스티벌 in 달서」

뜨거운 여름, 상큼한 레몬처럼 청량하고도 트렌디한 감각을

가진 인디밴드의 음악과 함께하는 감성 뮤직 페스티벌

- 일시 : 2022. 8. 27.(토) ~ 28.(일)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 1일권 20,000원, 2일권 30,000원



「달서 현대 춤 페스티벌」

지역을 대표하는 안무자들이 선보이는 창작 현대춤 작품들

현대무용이라는 특정 장르를 넘어 현시대에 공연되고 있는 모든 춤 장르를 소개하고 지역 무용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 일시 : 2022. 12. 2.(금) 19:3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 전석 무료

시민들의 문화 취향이 반영된 시기별 프로그램, 전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서트

「가을밤의 낭만 클래식

: 첼리스트 심준호 x 피아니스트 박종해 듀오 콘서트」

2010년 쥘레스 뮤지컬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 첼리스트 심준호와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피아니스트 박종해의 듀오 콘서트

- 일시 : 2022. 9. 16.(금) 19:3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 30,000원

OSAC 시리즈

OSAC 클래식 아티스트 프로젝트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콘텐츠,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최상의 공연

「2022 가곡열전」

2019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가곡 애호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전문 한국 가곡 음악회.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상급 성악가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한국 가곡의 향연

- 일시 : 2022. 11. 11.(금) 19:3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 20,000원

「카이로스 댄스 컴퍼니 : 움직임으로 읽어주는 햄릿」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비극 햄릿에 음악을 입히고 무용수들의 움직임으로 나타낸 새로운 형식의 극무용

배우들의 언어,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표현력이 결합된 특별한 햄릿

- 출연 : 카이로스 댄스 컴퍼니
- 일시 : 2022. 8. 31.(수) 19:3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 10,000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컴퍼니 : 시네마 인 재즈」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영화 음악들을 아름다운 영상과 재즈 편곡으로 즐길 수 있는 「시네마 인 재즈」

- 출연 :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컴퍼니
- 일시 : 2022. 11. 30.(수) 19:3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 10,000원



OSAC 문화관광 프로그램

작품성과 대중성이 검증된 예술단체의 우수공연 프로그램

「The Magic 팬텀 & 퀸」

화려한 볼거리가 있는 마술과 음악의 만남

마술사와 40인조 오케스트라와 팬텀싱어즈 출연 가수들, 한국을 대표하는 콜라투라 소프라노 유성녀가 출연하여 한국인이 좋아하는 아리아, 뮤지컬 넘버, 대중가요, 친숙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마술을 하나의 스토리로 선보인다.

- 일시 : 2022. 11. 19.(토) 19:0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 30,000원



아카데미 하반기 프로그램



2022년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어른들의 공연감상 놀이터 달서」 2기

달서아트센터 공연과 연계하여 공연관련 지식, 감상포인트를 배우고 이해하며 공연을 보다 즐겁게 관람하기 위한 성인대상 예술감상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 교육기간 : 2022. 8. 3.(수) ~ 9. 7.(수)
- 교육시간 : 16:00 ~ 19:00 ※ 5회차 : 19:00 ~ 22:00
- 교육대상 : 만 19세 이상 대구시민
- 교육인원 : 20명
- 교육장소 : 달서아트센터
- 교육비 : 전액 무료
- 교육내용

회차	교육일	교육내용
1회차	8. 3.(수)	명작 햄릿 그리고 셰익스피어
2회차	8. 10.(수)	드라마가 있는 예술
3회차	8. 17.(수)	예술, 선물을 담다
4회차	8. 24.(수)	예술, 공간과 만나다
5회차	8. 31.(수)	「움직임으로 읽어주는 햄릿」 공연 관람
6회차	9. 7.(수)	예술 감상 나누기

• 문의 : 예술아카데미(053-584-8722)



2022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소리이야기 탐험대」

달서아트센터 기획공연의 배우, 연주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공연을 심층적으로 감상하고, 음악·그림·연극의 요소를 배우면서 무대예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 교육기간 : 2022. 7. 9.(토) ~ 8. 13.(토)
- 교육시간 : 1기 9:30 ~ 12:20 / 2기 13:30 ~ 16:30
- 교육대상 : 4 ~ 6학년 초등학생
- 교육인원 : 기수별 12명(총 2기수)
- 교육장소 : 달서아트센터
- 교육비 : 전액 무료
- 교육내용

회차	교육일	교육내용
1회차	7. 9.(토)	보이는 음악, 들리는 그림
2회차	7. 16.(토)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하기
3회차	7. 23.(토)	악기로 소리 표현하기
4회차	7. 30.(토)	「아트그룹 AMuse: 지혜로운 전래공화 이야기」 공연 관람
5회차	8. 6.(토)	이야기를 소리로 표현하기
6회차	8. 13.(토)	소리로 그림자극 만들기

• 문의 : 예술아카데미(053-584-8721)



「예술인문특강」

문화예술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달서아트센터의 기획공연 및 전시와 연계한 프리뷰 강의와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가가 예술교육 콘텐츠를 마련한다.

- 교육기간 : 학기별 4회 ~ 6회
- 교육장소 : 달서아트센터
- 교육비 : 특강별 3만 원 또는 4만 원

예술실기강좌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술장르별 실기강좌를 운영한다.

- 클래식
바이올린 / 비올라
- 국악
해금 / 풍물 / 설장구 / 팽과리
- 실용음악
아코디언 / 우쿨렐레 / 통기타 / 드럼
- 미술
천에 그리는 그림 / 플러스펜 수채화 / 민화 / 색연필 일러스트 & 보타니컬 아트 / 콩테연필초상화 / 캘리그래피 / 수채화 / 유화 / 연필드로잉 / 색연필드로잉
- 서예
한글 / 한문서예 / 수묵화(사군자, 산수화) & 캘리그래피

- 공예
생활도예 / 포크아트 / 꽃꽂이 / 프랑스자수 / 닥종이인형공예 / 생활한복 & 린넨옷
- 한국무용
한국무용 / 선비춤
- 요가
필라테스 교정요가 / 비니요가
- 댄스
댄스스포츠 & 소셜댄스 / 라인댄스 / 벨리댄스 / 부부댄스스포츠 / 소셜댄스 / 줌바댄스
- 교양
성인펜글씨 / 영어회화 / 일본회화
- 키즈아트
종이공예 / 어린이 사물놀이

달서문화재단 하반기 축제



한여름 밤의 콘서트 「소나기 콘서트」

달서문화재단이 두류관에서 개최하는 여름 축제로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한여름 밤의 콘서트, 「소나기 콘서트」를 개최한다. 코오롱 아외음악당에서 현장성을 띠는 대면 공연으로 이루어지며 1부는 지역 예술가들의 클래식 공연과 달서아트센터 자체 제작 뮤지컬 「월곡」의 하이라이트 공연을 선보인다. 2부에는 미스트롯2 은가은, 가수 강진, 국악가수 권미희가 무대를 펼친다. 일상을 되찾고 무더위를 잠시 잊는 힐링과 여유로운 '여름 나기' 콘서트를 즐겨보자!

- 일시 : 8. 26(금) 19:00 (예정)
- 장소 : 코오롱 아외음악당
- 입장료 : 무료
- 문의 : 문화정책실(053-584-9712)

달서생활문화센터 하반기 프로그램



자연친화프로그램 「오감으로 익히는 달서 생태도감」

생태 관련 도서를 읽은 후 이와 연계되는 자연활동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오감만족 프로그램. 달서구의 별빛 숲속 생태 놀이터, 대명유수지 등에서의 현장학습도 함께 구성하여 관내 어린이들이 일상 속에서도 자연환경에 관심을 갖고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 기간 / 일시 : 2022. 8. 31. ~ 11. 30. / 매주 수요일 16:00
- 장소 : 달서생활문화센터 송현점
- 대상 : 관내 아동(6세 ~ 10세)
- 모집인원 : 매회 15명
- 문의 : 달서생활문화센터 송현점(053-621-6566)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사업 「달서동네 전래동화」

달서구 지명 유래, 전설 등 달서구 이야기를 나와 가족의 이야기로 각색하고, 글에 맞는 그림을 직접 그려 만드는 나만의 동화책 만들기 프로그램. 물감, 파스텔 색연필 등 다양한 채색도구로 그림을 그리며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즐거움은 덤으로 주어진다.

- 기간 / 일시 : 2022. 8. 23. ~ 11. 8. / 매주 화요일 9:30
- 장소 : 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
-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모집인원 : 15명
- 문의 : 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053-584-8969)



청춘자서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민들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와 현재 일상을 글로 표현해 공유하고, 그 이야기들을 엮어 수필집을 발간하는 프로그램

- 기간 / 일시 : 2022. 9. 15. ~ 12. 1. / 매주 목요일 9:30
- 장소 : 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
- 대상 : 글쓰기를 좋아하는 주민 누구나
- 모집인원 : 20명
- 문의 : 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053-584-8969)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손끝으로 담는 달서」

디카시(디지털카메라 사진+시), 캘리그래피, 아트북 만들기 과정을 한데 엮어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내가 만든 디카시를 나만의 서체로 표현하여 만든 작품은 올해 연말 시화전으로 이웃에게 공개된다.

- 기간 / 일시 : 2022. 9. 13. ~ 11. 15. / 매주 화요일 14:00
- 장소 : 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
- 대상 : 시민 누구나
- 모집인원 : 15명
- 문의 : 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053-584-8969)



달서가족문화센터 하반기 프로그램

달서가족문화센터 가을학기 가족공연

「렉처 오페라 시리즈」

어렵게 생각되는 오페라를 쉽게 감상할 수는 없을까? 달서가족문화센터는 평소 어렵게 여겨지는 오페라를 온 가족이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렉처형식의 오페라 공연을 기획했다.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9월)과 레하르 「유쾌한 미망인」(10월),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11월) 등 작곡가들의 대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I.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 일시 : 9. 21.(수) 19:30
- 장소 : 달서가족문화센터 4층 소공연장
- 출연 : 영남 오페라단

II. 레하르 「유쾌한 미망인」

- 일시 : 10. 19.(수) 19:30
- 장소 : 달서가족문화센터 4층 소공연장
- 출연 : CM심포니오케스트라

III.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 일시 : 11. 23.(수) 19:30
- 장소 : 달서가족문화센터 4층 소공연장
- 출연 : 인칸토 솔리스트 앙상블

입장료 5천 원, ☎문의 053-632-3800~2 운영지원팀



달서가족문화센터 가을학기 가족특강 「공부 특집」

늦기는 쉬워도 배움을 이루기는 어렵다(少年易老學難成)고 했던가.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싫어도, 재미없어도 해야 하는 것이 공부다. 하기 싫은 공부, 즐기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공부'에 대한 명실상부 두 전문가를 초청해 공부의 의미와, 효율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공부법을 제시한다.

I. 공부의 본질 : 공부 왜 해야 하는가

- 일시 : 9. 29.(목) 10:30
- 장소 : 달서가족문화센터 4층 소공연장
- 내용 : 인생 전반에 걸쳐 공부가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현실을 진단하여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 출연 : 최재천(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최재천

II. 1등급 공부법 : 재미있게 공부하자

- 일시 : 10. 19.(수) 10:30
- 장소 : 달서가족문화센터 4층 소공연장
- 주제 : 이왕 해야 하는 공부, 좀 더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인지심리학 공부법을 소개한다.
- 출연 : 김경일(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

입장료 5천 원, ☎문의 053-632-3800~2 운영지원팀

신달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하반기 프로그램

공감 UP! 소통 UP!

여성의 재취업을 높이고 기업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한 구인·구직 쌍방향 공감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2022 대구여성 행복일자리 박람회」 운영

- 일시 : 9. 2.(금) ~ 9. 3.(토) 10:00 ~ 17:00
- 장소 : 대구EXCO 동관 5홀
- 슬로건 : 나를 찾다, 일을 잡(Job)다! 여성이 행복한 대구!
- 대상 : 지역 내 취업희망 여성 및 채용 기업 누구나
- 내용 : 취업상담, 현장면접, 신달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사업홍보, 부대행사 운영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굿잡(Good Job)버스 & 카페」 운영

- 일시 : 9. 19.(월), 11. 14.(월) 11:00 ~ 17:00
- 장소 : 월성근린공원 외 1개소(*변동가능)
- 대상 : 지역 내 취업희망 여성 누구나
- 내용 : 맞춤형 취업상담, 현장면접, 이력서클리닉, 노무·심리상담, 취업응원이벤트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기업체 탐방」 운영

- 일시 : 10월 ~ 11월, 1 ~ 2회 예정
- 장소 : 지역 내 여성구인 기업체 2개소
- 대상 : 신달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직등록 여성 30명 정도
- 내용 : 기업 및 주요업무 소개, 라운딩, 실무진 면담 및 질의응답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인식개선교육」 운영

- 일시 : 8월 ~ 12월
- 대상 : 지역 내 여성 구인기업(신달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협약기업)
- 내용 : 법정 의무교육, 종사자 의사소통, 힐링 교육 등 지원

취업·직장 적응 지원

「구직·취업자 동아리 & 간담회」 운영

- 일시 : 8월 ~ 11월 중
- 대상 : 신달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직등록 및 취업자 대상
- 내용 : 취업역량개발을 위한 동아리 지원, 간담회(1회) 등을 통한 구직·취업활동 응원, 고용불안 및 스트레스 해소, 고용유지 격려 기회 마련

근무환경 개선 지원 「기업환경개선사업」 운영

- 일시 : 7월 ~ 12월 중
- 대상 : 신달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채용(예정) 및 창업기업, 일촌협약 기업 등
- 내용 : 기업 시설환경개선 및 창업기업 초기물품구입 등 환경개선을 통한 여성친화 근무환경 조성 지원

「토닥토닥 마음처방, 건강한 일터 만들기」 운영

- 일시 : 7월 ~ 11월
- 대상 : 달서구 지역 내 취약계층 근로자
- 내용 : 취약계층 근로자 맞춤형 취업상담, 근로자 심리치유를 위한 아로마테라피, 미술치료 등 힐링프로그램 지원

2022년 여름호 달서문화만개 웹진 발간

문화가 꽃피는 도시,
달서문화재단이 만들어 갑니다



www.dscf.or.kr 



 달서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dscf.or.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alseoculture2014>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alseonculture/>